차 례

제 1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따라배우자!

이 판은 《**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도록의 총서판입니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투쟁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셔왔는가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20세기가 낳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걸출한 혁명의 수령이시며 만민이 우러러 경모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시대를 향도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를 뿌리로 한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여 인간의 운명개척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비범한 령군술과 독창적인 전법으로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세기적전변을 안아오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가장 고결하고 뜨거운 애국, 애족, 애민의 리념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넓은 길을 펼쳐주신 민족의 구성이시며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정치의 원로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심오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과 풍모로 한평생 혁명투쟁의 길에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불세출의 위인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혁명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를 깊이 학습하고 적극 따라배우는것은 선군시대 우리 학생청년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더없이 큰 영예와 행복입니다.

우리 학생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 모두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끝없이 충실한 선군혁명투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 2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어린시절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1(1912)년 4월 15일 평양시 만경대에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들이신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선생님의 맏아드님으로 탄생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은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통운이였으며 인류의 태양을 맞이한 일대 사변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우리 민

족의 새 력사가 시작되고 주체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가정은 열렬한 애국자, 불굴의 투사들을 낳은 력사에 류례없는 혁명일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 당시 조선의 어느 농촌, 어느 고을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아버님과 할아버님, 할머님은 열렬한 애국자들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미제침략선 《셔먼》호를 쳐부시는 투쟁의 앞장에 서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남달리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시였으며 대동강에 기여든 미제침략선 《셔먼》호의 격침과 《쉐난도아》호를 격퇴하는 싸움의 앞장에서 용감하게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선생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선생님께서는 아드님들과 손자분들을 모두 나라를 찾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내세우시고 그분들의 투쟁을 뒤받침해주시면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들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습니다.

○ 도록의 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앞장에서 활동하시였으며 주체6(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를 내오시고 광범한 애국력량을 그 두리에 묶어세워 우리 인민의 힘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체8(1919)년 3.1인민봉기이후 무장한 원쑤는 무장으로 때려부셔야 한다는 투쟁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습니다.

선생님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싸우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전환시키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어머님이신 강반석선생님은 한평생을 오로지 조선혁명의 승리와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나라 혁명적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습니다.

○ 도록의 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어머님이신 우리 나라 혁명적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선생님이십니다.

강반석선생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녀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를 무으시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모진 가난과 일제경찰의 끊임없는 박해속에서도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김형직선생님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성심성의로 도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삼촌과 동생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들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삼촌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선생님이십니다.

김형권선생님은 조국광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견결히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으시고 이끄신 혁명조직과 조선혁명군에 참가하시였으며 주체19(1930)년 여름에는 조선혁명군의 한 소조를 거느리시고 국내깊이에까지 나오시여 풍산, 리원, 북청, 홍원일대에서 무장활동을 힘있게 벌리심으로써 일제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동생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선생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생이신 김철주선생님은 어린시절부터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드시고 일제를 반대하여 몸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안투(안도)공청조직의 책임자로 활동하시면서 대중속에서 정치공작을 힘있게 벌리시였고 중국인반일부대들을 쟁취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하시였으며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최후를 마치실 때까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굳세게 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님은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자이시였으며 외삼촌이신 강진석선생님도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신 불굴의 반일애국투사이시였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가정은 증조할아버님으로부터 할아버님과 할머님, 아버님과 어머님, 삼촌과 동생 그리고 외할아버님과 외삼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라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싸우신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위인적풍모가 싹트고 자라난 터전이였으며 주체의 혈통이 뿌리내린 혁명의 요람이였습니다.

제 3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의 교양을 받으시며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1)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린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워나가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부모님과 동생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많

이 받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일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이 나쁜 놈들이며 식민지사회가 나쁜 사회라는 교양을 받았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일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이 나쁜 놈들이며 식민지사회가 나쁜 사회라는 교양을 받으시며 나라를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려서부터 애국의 넋을 깊이 간직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시였으며 그런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이름도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뜻에서 《성주》라고 지어주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가정에는 효자동, 이웃에는 화목동, 나라에는 영웅동이 되라고 손수 《자장가》도 지어 불러주시였으며 어리신 아드님을 무릎에 앉히시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장차 나라의 영웅동으로 자라도록 억세게 키우시였습니다.(도록판의 가사를 짚으면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여기에 인용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원대

한 뜻을 이룩하자면 먼저 배워야 한다, 사람이 배워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야 혁명의 길에 나설수 있으며 또 혁명을 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시며 아드님에게 어려서부터 글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리실 때 아버님으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우리 조국과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에 대하여, 봉건통치배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인민과 애국명장들, 세계문화고를 꽃피운 찬란한 민족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와 민족적멸시, 지주, 자본가놈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에 대하여 끊임없는 교양을 받으시며 뜨거운 애국심과 계급적원쑤놈들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을 키우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시절 어머님의 교양을 받으시며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키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어머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의 어머님은 나에게 늘 나라를 사랑하고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애국주의사상을 심어주시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에 대하여 매우 감명깊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해종일 밭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저녁대로 무명낳이와 바느질을 하시면서도 밤마다 아드님을 옆에 앉히시고 글공부를 시키시였으며 나라를 찾기 위하여 싸우고계시는 아버님의 뜻을 이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벌써 **《조선독립》**이라는 글자를 붓으로 쓰시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혁명의 비밀을 지켜 일제경찰놈들과 싸우시는 어머님의 강의한 모습을 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주체6(1917)년 가을 봉화리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여가신 뒤 몇시간 지나서 또 경찰들이 달려들어 비밀문건을 찾아내려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강반석녀사께서는 성이 나서 《자, 볼테면 보라!》고 웨치시며 자신의 손으로 옷가지들을 막 내던지고 찢어내치시면서 무서운 기상으로 맞서시였습니다. 이날의 어머님의 강의한 모습은 위대한 수령님께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평양감옥에서 아버님을 만나보시며 일제를 때려부실 굳은 결의를 다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주체7(1918)년 여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평양감옥에 가시여 옥중고초를 겪으시면서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는 아버님의 불굴의 모습을 보시면서 강도 일제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더욱 굳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동지들의 두터운 신뢰속에서 혁명투쟁을 벌리시는 아버님과 부드러우시면서도 매사에 심중하고 원칙성이 강하신 어머님의 성품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으시며 혁명가의 고결한 품성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쓰라린 생활체험과 조국과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직접 목격하시는 과정에 반일애국사상과 계급의식을 키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근근히 살아가시는 일가분들의 가난한 생활과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을 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의 반동성과 착취사회의 모순을 깊이 깨달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모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강동, 중강, 린쟝(림강), 바다오거우(팔도구), 푸쑹(무송)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 나라잃은 우리 민족의 설음과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시면서 일제를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아버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다니시며 계시던 집들인 봉화리살림집, 중강려인숙, 린쟝(림강)살림집, 푸쑹(무송)살림집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할아버님의 일손을 도와드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리실 때 부모님의 영향밑에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일하기를 좋아하는 아름다운 품성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늘 어머님과 함께 밭으로 나가군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내리쪼이는 뙤약볕아래서 땀흘리며 김을 매시는 어머님의 앞으로 먼저 나가시며 밭이랑의 큰 풀을 뽑기도 하시고 뽑은 풀을 한아름씩 안아다 밭최뚝에 무져놓기도 하시였습니다.

제 4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의 교양을 받으시며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2)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린시절 열렬한 애국자, 참다운 혁명가의 훌륭한 품격을 키우시며 자라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나라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기 위하여 학습에 열중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어린시절 공부에 열중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남달리 총명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살 잡히던 때부터 아버님에게서 우리 글을 배우시여 자체로 쓰고 읽으시였으며 5살때부터는 스스로 글의 뜻을 해득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봉화리에 계실 때 명신학교에서 울려나오는 아버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시였을뿐아니라 학생들의 글읽는 소리도 즐겨들으시며 몸과 마음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시도 잘 읊으시였으며 연설도 잘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6살나시던 해에 아버님께서 써주신 연설문을 외우시여 마을사람들앞에서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일제놈들의 침략적본성과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고 인민들을 투쟁에로 부르는 어리신 수령님의 랑랑한 목소리는 마을사람들의 가슴을 크게 울려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원쑤를 미워하는 정신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

시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짓밟힌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하였으며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군함바위에서 군사놀이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감옥에서 아버님을 만나보신 뒤부터 아버님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동무들을 데리시고 일제놈들을 쳐부시는 군사놀이에 더욱 열중하시였습니다.

군사놀이에서 대장이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칼을 드시고 군함바위에 올라서실 때면 용맹스러운 장군의 품격그대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1919)년 일제를 반대하는 3.1인민봉기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3.1인민봉기때 나는 만경대일대 인민들의 시위대렬을 따라 보통문앞까지 갔다왔습니다. 이때 나는 원쑤들을 반대하여 일떠선 우리 인민들의 억센 투지와 용맹한 기상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1인민봉기에 떨쳐나선 만경대인

민들의 시위대렬에 참가하시여 30여리나 되는 보통문앞까지 가시면서 어른들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목청껏 부르시였습니다.

이날 어리신 수령님께서는 일제침략자들과 굴함없이 싸우는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모습과 사람들을 총칼로 무참히 죽이는 일제놈들의 치떨리는 살인만행을 보시면서 일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반일의식을 키우시였으며 우리 민족의 희생적인 투쟁정신과 영웅적기상을 가슴깊이 새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성품이 활달하시고 탐구심이 강하시였으며 동무들을 사랑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만경봉에서 무지개잡이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주체5(1916)년 여름 어느날 소나기가 지나간 뒤에 순화강에서 동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경대집우에 칠색무지개가 곱게 비낀것을 보시게 되였습니다. 무지개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잡아보고싶어 집으로 달려가 들메나무에 오르시였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벌써 자리를 옮겨 만경봉 소나무우에 걸려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봉에 있는 소나무우에 올라가보시니 무지개가 만경봉너머로 사라져서 소원을 이루시지 못

하였습니다.

이날저녁 수령님께서는 무지개를 놓쳐버린것을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가까이 다가가면 무지개가 자꾸만 자리를 옮기군 하는 그 《조화》에 대하여 아버님에게 물으시여 종내 그 리치를 아시고야말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놀라운 탐구심을 지니고계셨기에 축음기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비밀을 알아내려고 소리판도 깨여보시고 칼끝으로 공명판도 뜯어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동무들을 옳은 길로 나가도록 타이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어리실 때부터 동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고 언제나 동무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비밀련락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어리신 수령님께서는 바다오거우(팔도구)에 계실 때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도와 일제놈들의 총칼의 숲을 헤치시고 압록강을 넘나드시면서 비밀편지를 나르시였으며 아버님께서 비밀모임을 가지실 때에는 어두운 밤거리에서 뭇별들을 동무삼아 망을 보아드리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어린시절의 사적을 보여주는 만경대의 들메나무, 군함바위, 썰매바위, 씨름터 그리고 봉화리 군사놀이터, 중강승리터입니다.

제 5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를 찾으실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천리길을 걸으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력사에 길이 빛날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워가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력사에 길이 빛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열두살때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나라의 글을 더 잘 배우며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애국의 뜻을 키우기 위하여 혼자서 조국땅을 향하여 팔도구를 떠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2(1923)년 3월, 이제부터는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조선에서 태여난 남아라면 마땅히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바다오거우(팔도구)를 떠나 혼자몸으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지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을 보여주는 로정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를 짚으면서)

주체12(1923)년 3월 16일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다오거우를 떠나 80여리의 눈길을 헤치시며 월탄에 이르시여 이곳에서 하루밤을 주무시였습니다.

3월 1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월탄을 떠나 험한 오가산령을 넘으시여 화평에 이르시는 과정에 고역에 시달리는 벌목부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였습니다.

3월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평을 떠나 흑수에 이르시여 려인숙에서 하루밤 묵으시면서 동점마을광부들의 비참한 생활과 나라의 지하자원을 마구 략탈해가는 일제놈들의 만행을 보시고 놈들에 대한 증오심을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3월 1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흑수를 떠나 직고개를 넘으시고 장강을 거쳐 강계에 이르시여 아버님과 련계를 가지고있던 강계객주집 주인을 찾으시여 그 집에서 주무시였습니다.

3월 2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계우편국에서 아버님께 《강계무사도착》이라는 전보를 치시였습니다.

3월 2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계를 떠나 불길령을 넘으시여 별하(성간)에 도착하시였습니다.

3월 2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별하를 떠나 전천에 도착하시였습니다.

3월 2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천을 떠나 길골령의 지름길로 령을 넘어 고인에 이르시여 자그마한 이곳에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등 통치기관들을 세워놓고 주인행세를 하며 나라자원을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일제침략자들의 만행을 보시였습니다.

3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인을 떠나 아흔아홉굽이 험한 개고개(명문고개)를 넘어 청운에 이르시여 이곳 객주집에서 일제침략자들의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원한에 찬 이야기를 들으시며 길손들과 함께 하루밤을 주무시였습니다.

3월 2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운을 떠나 희천에 도

착하시였습니다.

3월 2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희천을 떠나 원림고개를 넘으시면서 눈덮인 묘향산의 산봉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놈들에게 짓밟혀 빛을 잃고있는 묘향산을 기어이 찾으리라 굳게 결심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향산에 이르시여 려인숙에서 하루밤을 주무시였습니다.

3월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향산을 떠나 구장에 이르시여 려인숙에서 하루밤을 주무시면서 로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의 원한에 찬 비참한 생활처지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행위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시였습니다.

3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장을 떠나 개천에 이르시여 개천에서 반일운동자들을 도와주고있던 《서선려관》주인을 찾으시여 그 집에서 하루밤을 주무시였습니다.

3월 2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천역에서 기차로 떠나 신안주를 거쳐 평양에 도착하시여 아버님께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전보를 치시고 고향 만경대에 이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이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만경대고향집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이 천리길은 조국을 알게 하고

우리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학교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나라찾을 큰뜻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나오시여 칠골외가집에 계시면서 창덕학교 5학년에 편입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창덕학교시절에 계시던 칠골외가집과 공부하시던 책상이며 그리고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공부하시던 창덕학교와 교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덕학교에서 학습에 열중하시여 첫 학기부터 모든 과목에 걸쳐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시였습니다.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서는 일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아야 하겠다는 애국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할아버님께서 가지고 오신 5학년교과서들중에서 일본어교과서에 《국어독본》이라고 씌여진것을 보시고 일본말책을 왜 국어책이라고 하는가고 물으시며 《국어독본》을 《일어독본》으로 고쳐놓으시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어가 결코 《국어》로 될수 없을뿐아니라 조

선사람은 조선말을 버릴수 없으며 일본놈앞에 굴복할수 없다는 불같은 애국정신에서 나온것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만경봉에서 학습에 열중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와 집에서는 물론 만경봉에 자주 오르시여 저녁늦게까지 책읽기에 열중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원쑤놈들뿐아니라 지주, 자본가놈들을 끝없이 미워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보통강의 토성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덕학교에 다니실 때 동무들과 같이 평양시내와 그 주변마을에 나가시여 인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며 일제놈들과 그와 한짝이 된 지주, 자본가놈들을 때려부셔야만 모든 인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새 세상을 세울수 있다고 생각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동무들에게 미제침략선 《셔먼》호를 격침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외시간에 동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한편 그들에게 우리 인민들의 슬기롭고 용감한 투쟁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시면서 계급의식을 높여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자면 몸을 단련해야 한다고 하시며 공차기와 씨름, 군사놀이 등 여러가지 운동을 자주 벌리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창덕학교시절의 혁명활동사적을 보여주는 칠골독서터, 칠골군사놀이터와 룡악산랭천터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전해들으시고 주체14(1925)년 1월 22일 기어이 아버님의 원쑤, 일가의 원쑤, 조선민족의 원쑤를 갚고야말리라는 굳은 결의를 다지시며 만경대를 떠나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포평나루터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어이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으리라는 철석같은 맹세를 조국땅에 남기시고 압록강을 건느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열네살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이 비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신 《압록강의 노래》를 새긴 노래비입니다.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다오거우의 집에 이르시여 어머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시고 아버님께서 어떻게 되였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목소리를 낮추어 무사하다고 대답하실뿐 다른 말씀은 없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는 놈들의 감시가 심하니 인차 떠나라고 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을 받들어 천리길을 걸어오신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그날밤으로 동생들을 데리시고 바다오거우를 떠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이 동생들과 함께 린쟝(림강)으로 떠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린쟝을 거쳐 푸쑹(무송)으로

가시여 푸쑹제1소학교에 편입하시여 학습에 열중하시는 한편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우시였으며 특히 학생들과 광범한 군중속에 온 민족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일제강도무리를 기어코 조국강토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반일애국사상을 열정적으로 선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애국정신과 남달리 큰 포부, 넓고 깊은 정치적식견과 너그러운 포옹력은 수많은 청소년들과 군중으로 하여금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르게 하였습니다.

주체15(1926)년 6월 5일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시였습니다.

아버님을 잃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상실의 아픔은 그 무엇에도 비할바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그리고 두자루의 권총, 이 고귀한 혁명유산에서 커다란 힘을 얻으시였으며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어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굳은 결의를 다지시였습니다.

제 6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한 혁명적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무으시고 청년학생들을 투쟁속에서 새 세대 공산주의자로 억세게 키우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5(1926)년 6월 화디엔(화전)으로 가시여 화성의숙에 입학하시였습니다.

그러나 뒤떨어진 민족주의사상으로 일관된 화성의숙의 교육내용이 새것을 지향해나가시는 수령님의 기대를 만족시킬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열심히 읽으시며 거기에 나오는 혁명의 원리들을 조선의 구체적현실과 결부시켜 깊이 연구분석하시였습니다. 이 과정에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해

방을 이룩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잘 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것을 확신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혁명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전위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10월 10일에 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여시고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 활동규범들에 대한 토의를 하시였으며 한주일후인 주체15(1926)년 10월 17일에는 김시우네 집에서 정식으로 타도제국주의동맹(《ㅌ. ㄷ》)을 무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ㅌ. ㄷ》결성모임에서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과 최종목적을 밝힌 투쟁강령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세계에서 공산주의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이며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으며 《ㅌ. ㄷ》가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고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ㅌ. ㄷ》를 결성하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의 참다운 시원이 열리게 되였으며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되여나가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ㅌ. ㄷ》를 조직지도하신데 대한 내용을 담은 출판물자료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신 후 혁명운동을 더 높은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벌려나가시기 위하여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지린(길림)으로 옮기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은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무르익히시며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6(1927)년 1월 중순 지린으로 가시여 지린육문중학교에 적을 두시고 혁명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진사상을 더 깊이있게 연구하시는 한편 청년학생들속에 선진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린육문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에 비밀독서조를 무으시고 널리 운영해나가시는 한편 독서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웅변대회를 마련하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진사상을 보급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다니신 지린(길림)육문중학교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을 조직화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제시하시고 청년학생들을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5(1926)년 12월 15일 푸쑹(무송)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소년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하시였고 주체16(1927)년 4월 지린에서 조선소년들의 합법적조직인 조선인지린소년회를 무으시였으며 주체16(1927)년 5월에는 민족주의자들의 후원을 받고있던 순수한 친목단체인 조선인려길학우회를 혁명적인 청년학생조직인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편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16(1927)년 8월 27일 《ㅌ. ㄷ》를 보다 대중적조직인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시고 그 조직을 넓혀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혁명조직들이 무어지고 그 활동이 적극화됨에 따라 이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주체16(1927)년 8월 28일 새로운 혁명적전위조직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는 회의를 소집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연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에 즈음하여》 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혁명적전위조직창립의 력사적필요성을 분석하신 다음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성격과 과업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이날 회의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책임자로 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공청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공청회의를 조직지도하시던 베이산(북산)공원의 야오왕(약왕)묘와 그안에 있는 지하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7(1928)년 1월 15일 푸쑹에서 우리 나라에서 첫 혁명적출판물인 《새날》신문을 몸소 창간하시였으며 뒤이어 많은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시여 그것이 청소년들과 인민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새날》신문발간사업을 지도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도록의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17(1928)년 5월 10일 지린(길림)에서 《려신청년회》대표와 하신 담화 《청년들은 선진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가야 한다》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 중국반동군벌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7(1928)년 여름 일제와 결탁한 중국반동군벌을 반대하는 지린육문중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투쟁을 조직지도하시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

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그해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일제가 만저우(만주)침략을 목적으로 벌려놓은 지린—회령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는 지린시내 청년학생들의 시위투쟁과 일본상품을 배척하는 보다 큰 규모의 대중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지린(길림)—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조직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지린—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첫 대규모의 반일대중투쟁이였습니다. 이 투쟁은 만저우침략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던 일제와 중국반동군벌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을 짓부시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민족주의자들의 그릇된 견해를 폭로비판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허황한 주장과 그릇된 리론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면서 그들의 각종 《주의주장》의 반동적본질과 그

것이 조선혁명발전에 끼치는 엄중한 후과와 해독성에 대하여 날날이 폭로비판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운동단체들이 분렬을 극복하고 통합을 실현하도록 혁명적인 영향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운동의 분렬을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주체18(1929)년 가을 남만청총대회를 계기로 국민부의 우두머리들의 분렬주의적책동에 타격을 주고 선진적인 청년들을 모해하고 체포학살한 그들의 죄행을 신랄히 폭로하시면서 청년학생들을 옳은 길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8(1929)년 가을 중국반동경찰에 체포되시여 지린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시며 조선혁명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옥중투쟁을 벌리시던 지린(길림)감옥과 감방입니다.

제 7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히시고 항일무장투쟁준비 사업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신데 대하여 그리고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고 항일무장투쟁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 5월초에 조선혁명을 개척해나가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지린(길림)감옥에서 출옥하신 후 쇠약해지신 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시대의 요구와 조선혁명의 실천적요구를 반영하고 우리 나라 혁명투쟁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이란 어떤 사상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혁명유산으로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과 《ㅌ.ㄷ》의 강령을 시원으로 하여 그후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구상하시고 무르익혀나가시였으며 그 과정에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뿌리로 하고있는 사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과 인류의 진보적사상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군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백전백승할수 있는 정확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 선군의 길을 확신성있게 걷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카룬(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19(1930)년 6월 30일 카룬(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에 걸쳐 카룬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를 여시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창시를 선포하시였으며 주체적인 혁명로선, 선군혁명로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시였습니다.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는것과 함께 봉건적제관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로부터 출발하여 현단계에서의 조선혁명의 성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문제들인 항일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기 위한 방침들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카륜회의후 우리 인민들은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내다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를 결성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조선혁명을 향도해나갈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오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그리고 《ㅌ. ㄷ》와 공청을 비롯한 여러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키우시는 한편 로동자, 농민 등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당조직을 내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카륜회의를 끝마치신 다음날인 주체19(1930)년 7월 3일 카륜의 진명학교 교실에서 주체형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 회의를 소집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19(1930)년 7월 3일 주체형의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를 무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카룬(카륜)회의를 지도하시고 첫 당조직을 무으신 쟈쟈툰부락과 계시던 집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지에 기층당조직을 확대해나가시였습니다.

주체19(1930)년 7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위수(고유수)의 이통(이통)하에서 첫 당조직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기층당조직들을 확대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 9월말 몸소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헤치시고 조국땅 온성지구에 나오시여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기층당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 10월 1일 온성군 두루봉에서 국내당조직결성회의를 여시고 온성지구 혁명조직핵심들로써 당조직을 무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19(1930)년 10월 1일 온성군 두루봉에서 당조직을 결성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며 도록가운데 두번째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연설 《국내당조직의 당

면과업에 대하여》 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국내당조직결성의 의의와 당면과업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후 국내각지와 동만일대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서 기층당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전개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시였습니다.

도록에 인용한 교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은 자기의 적극적인 정치군사활동으로 무장투쟁의 핵심적골간을 육성하며 무장투쟁에 필요한 무기를 마련하고 군사적경험을 축적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굳게 결속하여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핵심골간을 키우고 무기를 마련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은 무장을 갖추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 조선혁명군을 무으시고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 7월 6일 이통현 구위수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혁명군결성을 선포하시였습니다.

조선혁명군은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선군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며 군중정치사업도 하고 군사활동도 하는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였습니다.

조선혁명군의 결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준비를 철저히 갖출수 있게 한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혁명군성원들을 국내에로 파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바이(장백), 푸쑹(무송) 등 만저우(만주)의 각지와 국내 여러 지역에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들을 파견하시여 항일무장투쟁준비를 다그쳐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혁명군대오를 무어주신 구위수(고유수) 리쟈룬(리가룬) 전경이며 그우의 인물사진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인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공영, 계영춘, 김원우, 박근원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 5월부터 10월에 걸쳐 적의 경계와 탄압이 극심한 조건에서도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수습정비하고 조직을 확대해나가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은 농촌혁명화를 위하여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정치사업을 벌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우쟈쯔(오가자)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 군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혁명화하여 조직에 묶어세우시였습니다. 그리고 강연회, 토론회, 출판활동, 문예활동과 같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키시였습니다. 이리하여 여러 농촌마을이 혁명화되고 새로운 핵심들이 수많이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략적거점을 마련하며 혁명적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0(1931)년 5월 20일 옌지(연길)현 밍위에거우(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여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5.30폭동의 본질과 실패원인, 그 후과와 교훈을 심각히 분석총화하신 다음 새

로운 혁명적조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서 나서는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밍위에거우회의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적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파괴되였던 혁명조직들이 다시 꾸려지고 동만의 넓은 곳에 수많은 혁명조직들이 생겨나 활발히 움직이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및 공청간부들과 조선혁명군 성원들을 여러곳에 파견하시여 광범한 인민들을 반일투쟁에 묶어세우도록 하시는 한편 국내의 회령, 종성 등 륙읍일대와 싱룽(흥륭)촌을 비롯한 안투(안도)지구에 나가시여 새로운 혁명적조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력량이 더욱 확대강화되게 되였으며 무장투쟁의 거점이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동만을 휩쓴 추수투쟁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준비를 위한 핵심들을 더 많이 키워내시고 광범한 혁명군중을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단련시키시였으며 조중인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혁명군성원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들은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보급하는 청년공산주의자들입니다.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혁명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면서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제 8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하신데 대하여 그리고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인민혁명정부수립,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겨울밍위에거우(명월구)회의를 지도하시였습니다.

1931년 9월 18일, 일제침략자들의 만저우(만주)침공과 관련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는것은 한순간도 미룰수 없는 문제로 나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0(1931)년 12월 옌지(연길)현 밍위에거우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여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0(1931)년 12월 16일 옌지(연길)현 밍위에거우(명월구)에서 진행된 당 및 공청간부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로작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면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닦는 문제, 조중인민의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문제, 당조직사업과 공청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후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핵심부대, 주력부대로 될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치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대오를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투(안도)에 나오시여 조선혁명군과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단련육성된 성원들을 무장대오의 믿음직한 골간으로 준비시키시였습니다.

한편 적위대, 로동자규찰대, 소년선봉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에서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청년들과 추수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을 선발하여 무장대오를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1(1932)년 3월 안투현 샤오사(소사)하에서 몸소 키우신 18명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먼저 소규모의 유격대를 조직하시였습니다.

이어 왕칭(왕청), 옌지, 허룽(화룡), 훈춘을 비롯한 두만강연안의 여러 지역에서도 소규모의 유격대들을 광범히 조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유격대창건을 준비하시던 시기 비밀아지트로 쓰시던 집입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을 갖추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조직전개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하여 무장획득을 위한 투쟁을 벌

려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밑에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도록아래의 이 사진에서 보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유격대소조성원들과 적위대원들, 소년선봉대원들을 선두로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두가 떨쳐나 도처에서 일제침략군과 일만경찰, 친일주구들의 무기를 빼앗았고 또 자체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1(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안투(안도)현 샤오사하 무댜오(무주)툰 투치디엔(토기점)골 등판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식을 진행하시고 그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신 안투(안도)현 샤오사(소사)하 무댜오(무주)툰전경이며 이 권총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초기에 쓰시던 권총입니다.

그리고 이 로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에서 하신 연설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이 가지는 력사적의의를 강조하시고 반일인민유격대의 성격과 사명을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조직되였으며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 혁명적인 무장력입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첫 혁명무력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의 목적과 사명은 조선에서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달성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력사가 시작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5.1절을 계기로 반일인민유격대오가 행진한 쑹강(송강)앞거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갓 무어진 반일인민유격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남북만원정을 진행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두만강연안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였으며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연안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연안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1(1932)년 5월말 안투현 샤오사하에서 몸소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탄생하는 샤오사하유격구역창설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들에 적들의 통치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와 형식상으로는 적의 통치가 미치고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반일인민유격대가 장악하고 지도하는 혁명화된 반유격구를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적통치구역에 유격활동거점들을 설치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자료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소부대들이 북부조선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를 창설한데 대한 일제의 비밀문건과 신문보도자료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인민혁명정부는 인민이 주인이 되여 다스리는 정부로서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원쑤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였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인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회의들에서 쏘베트로선의 좌경적본질을 폭로하시고 유격구에 세워야 할 정권은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리고 몸소 유격구들에 나가시여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지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2(1933)년 3월 가야하(가야허)유격구 쓰수이핑(사수평)마을에 가시여 시범적으로 왕칭(왕청) 제5구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는 집회를 여시고 여기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쓰수이핑에서 첫 인민혁명정부의 수립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유격구들에 구인민혁명정부를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마을마다에는 촌인민혁명정부를 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주체22(1933)년 여름까지 두만강연안의 모든 유격구들에 구인민혁명정부가 나오고 마을마다 촌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신 다음 유격

구들에서 여러가지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토지를 분여받은 유격구인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 친일지주,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도록 하시였으며 산업분야에서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시는 한편 량심적인 중소민족자본가들의 기업은 장려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8시간로동제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마련하여주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구들에서 남녀평등권을 선포하고 녀자들에게 남자와 꼭같은 권리를 주시였으며 아동단학교들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유격구들에 유격대병원들을 설치하고 유격대원들과 유격구인민들이 무상치료를 받게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국제공산당파견원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주체22(1933)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당파견원을 만나 담화하시면서 좌경적인 쏘베트로선의 부당성과 인민혁명정부로선의 정당성에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국제당파견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전적으로 지지해나섰습니다.

제 9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유격구를 보위하고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며 무장투쟁을 넓은 지역에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면서 유격구를 보위하고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실현하신데 대하여 그리고 조선혁명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시여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추진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2(1933)년 3월 11일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주체22(1933)년 3월 1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검

의 숲을 헤치시고 왕재산에 나오시여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여시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로작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왕재산회의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후 한해동안 거둔 성과를 총화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고 회의후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미 창설한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와 잇닿아있는 국내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를 더 많이 창설하며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여 각계각층의 반일군중을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국내진출을 기념하여 왕재산에 세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유격구방위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구가 창설되자 일제는 유격구를 《동양평화의 암》이라고 떠벌이면서 어떻게 하나 그것을 없애보려고 미

쳐날뛰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나라안팎의 정세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유격구보위를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유격구보위를 위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유격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구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키고 유격구를 요새화하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구의 전민무장화와 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격구인민들을 여러가지 반군사조직에 망라시켜 무장시키는 한편 유격구를 요새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토벌》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전투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지휘하신 샤오왕칭(소왕청)유격구역방위전투장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2(1933)년 봄과 그해 가을부터 이듬해 겨울까지 샤오왕칭유격구역에 달려든 수천명의 일제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유격대와 유격구역인민들은 남녀로소모두가 떨쳐나 영웅적으로 싸워 거듭되는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으며 수령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시고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실현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3(1934)년 3월 9일 왕칭(왕청)현 마촌에서 반일인민유격대 군사정치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연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할데 대하여》 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인 무력체계로 3,3제에 따라 사단, 련대, 중대, 소대, 분대들을 내오며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는 원칙에서 편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편성하는데서 유격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하며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통일적인 지휘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할데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사업은 주체23(193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짧은 기

간에 결속되였습니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한것은 단순한 명칭의 교체나 실무적인 재편성이 아니라 무장대오의 군사조직체계를 개선하고 대오를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군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으로의 개편은 선군의 기치밑에 총대로 기어이 조국광복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령도밑에 불패의 대오로 강화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부대와의 련합전선을 실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광범한 중국인민의 반일력량과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합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련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일부대와 담판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인반일부대를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 묶어세우는 사업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나섰을 때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반일부

대사령들과 담판하시여 반일련합전선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둥닝(동녕)현성전투와 루오쯔거우(라자구)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여 반일련합전선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시여 혁명의 운명을 구원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선혁명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4(1935)년 3월 27일 야오잉거우(요영구)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끄심밑에 항일무장투쟁이 더욱 세차게 벌어지는데 겁을 먹은 일제놈들은 《민생단》이라는 간첩모략단체를 만들어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키려고 꾀하였습니다.

일제놈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견실한 조선혁명가들에게 《민생단》의 딱지를 붙여 마구 잡아 죽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북만원정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조선혁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황와이(다홍왜)회의와 야오잉거우회의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이 다황와이(다홍왜)회의와 야오잉거우(요영구)회의가 진행된 곳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반《민생단》투쟁에서 나타난 좌경적편향들을 비판하시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는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림으로써 혁명대오의 통일단결과 조선혁명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다홍왜회의와 요영구회의에서 조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주의자들의 비맑스주의적이며 좌경맹동주의적인 립장과 견해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할수 있었습니다.》

다황와이회의와 야오잉거우회의는 위기에 처하였던 조선혁명을 구원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혁명로선에 따라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을 넓은 지역에로 확대하여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무장투쟁을 넓은 지역에로 확대하여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항일무장투쟁을 광활한 지역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유격구를 해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넓은 지역에 진출하여 대규모적이고 적극적인 유격활동을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라오허이(로흑)산전투에서 승리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치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조선과 남북만의 넓은 곳으로 내보내시는 한편 몸소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북만원정(제2차 북만원정)을 앞두고 라오허이산전투와 타이핑거우(태평구)전투를 조직지휘하시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습니다.

또다시 북만에 이르시여 적극적인 정치군사활동을 벌려나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둥(산동)툰으로 몰려드는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시고 징붜후(경박호)를 건너 칭거우쯔(청구자)전투, 관디(관지)부근 류차이거우(류채구)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원쑤들을 족치시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에 의하여 전복된 일제의 군용렬차입니다.

제 10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아동단을 무으시고 소년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아동단을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리고 수령님께서 아동단원들의 학습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면서 그들을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혁명의 후비대로 키워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아동단을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유격구아동단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도 유격구에는 물론 적통치구역안에까지 아동단조직을 널리 내오시고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22(1933)년 3월 27일 왕

칭(왕청)에서 진행된 공청일군회의에서 아동단사업을 잘 지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공청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공청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면서 각급 공청단체들이 사상교양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아동단과 소년선봉대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 아동단은 공청의 후비대로서 어린이들을 우리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소년들의 반일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정치조직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살부터 15살까지의 소년들가운데서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며 공부를 잘하고 조직의 규률을 잘 지키는 용감한 소년들을 아동단에 받아들이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단에 혁명적인 구호와 상징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아동단의 혁명적구호는 《전세계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였습니다.

아동단의 상징에는 아동단기발, 아동단의 붉은넥타이, 아동단경례, 아동단곤봉이 들어있습니다.

아동단은 중대(단), 소대(분단), 분대(반)로 나누어져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을 조선혁명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로 억세게 키워주시였습니다.

도록에 인용한 교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유격구들에 아동단학교를 세우고 아동단원들을 불굴의 혁명투사로 억세게 키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친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동단원들의 학습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일과 같이 어려운 싸움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아동단원들을 위하여 유격구마다에 아동단학교를 세워주시고 마음껏 공부할수 있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도 기운이 솟는다. 어떠한 고난속에서도 실망과 비관이 없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어서어서 무럭무럭 커서 조국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라!》

아동단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나라 말과 글, 조선력사와 지리, 사회정치과목들

을 배우며 조선혁명에 쓸모있는 산지식을 가진 나어린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갔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우랑(어랑)촌유격구의 아동단 학교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아동단원들의 잠자리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추운 겨울날 자그마한 귀틀집에서 홑옷을 입고계시면서도 아동단원들에게만은 크고 더운 집에서 두툼한 솜옷을 입고 배고픈줄 모르고 지내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아동단원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깊은 밤 아동단원들의 침실에까지 들리시여 모포깃도 여며주시고 베개도 바로잡아주시면서 그들을 진정 친아버지보다 더 살뜰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도록에 인용한 교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마안산아동단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안산에서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로부터 버림받고있던 아동단원들

에게 강반석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시여 소중히 품고다니시던 뜻깊은 돈 20원을 내놓으시며 옷을 해입히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언제나 아동단원들을 부대와 함께 데리고다니시면서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으며 그들을 투쟁의 간고한 시련속에서 소년중대원으로,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이 소년중대원들을 간고한 투쟁의 시련속에서 투사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아동단원들을 키워나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이 학습과 생활을 잘해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으며 그들을 혁명실천을 통하여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나어린 혁명전사로,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비대로 튼튼히 키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아동단원들은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혁명투사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 도록아래 왼쪽 사진들은 유격구아동단원들의 학습과 생활, 투쟁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아동단원들은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근거지를 지키기 위한 유격대원들의 투쟁을 힘껏 돕는 한편 군사훈련에도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총쏘기와 유격전법을 배우면서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준비해갔습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아동단원들은 원쑤들의 비밀을 알아내여 유격대에 전달해주었고 눈보라 휘몰아치는 겨울밤에도 목숨을 내걸고 통신련락임무를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쑤들이 욱실거리는 적통치구역에 들어가 위험을 무릅쓰고 삐라를 뿌려 놈들을 떨게 하였으며 인민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동단원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예롭게 빛내였습니다.

○ 도록아래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항일아동단원 김금순의 장렬한 최후와 영웅성에 대하여 소개한 출판물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항일의 소년영웅 김금순입니다.

9살밖에 안되는 항일의 소년영웅 김금순은 적들에게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비밀을 지켜 굴함없이 싸웠습니다.

○ 도록아래 왼쪽의 이 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항일아동단과 아동단원들의 투쟁에 대하여 소개한 책들입니다.

제 11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난후터우(남호두)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신데 대하여 그리고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고 북부조선일대와 중부조선의 넓은 지역에 비밀근거지를 확대하신데 대하여, 보천보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난후터우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25(1936)년 2월 27일 난후터우(남호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선혁명가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과 그 수행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현단계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며 우리의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내보내여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해나갈데 대한 방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방침 등을 새롭게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내놓으신 이 방침들은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전국적범위에서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길수 있는 혁명적방도를 명시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였습니다.

력사적인 난후터우회의는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주체가 철저히 확립된 회의였습니다. 난후터우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새로운 일대 앙

양기,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난후터우회의후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적극 다그치시는 한편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작성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난후터우로부터 둥강(동강)에 이르는 멀고도 간고한 행군길에서,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환경속에서, 밀림의 우등불가에서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탐구를 거듭하시면서 조국광복회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을 위한 면밀한 준비에 기초하여 주체25(1936)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푸쑹(무송)현 둥강에서 조국광복회창립대회를 소집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먼저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로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할데 대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고 조국광복회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발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을 발표하시면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기치밑에 전민족이 단합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시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회의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조국광복회기관지로 《3. 1월간》을 발간할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구호문헌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조국광복회10대강령내용에 대하여 나무에 쓴 구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국내깊이에로 비밀근거지를 확대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신 후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는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푸쑹(무송)현성전투를 지휘하시

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을 제압하고 백두산근거지 창설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주체25(1936)년 8월 푸쑹현성전투를 승리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푸쑹지구를 장악하시였습니다.

푸쑹현성전투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사령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고 부대의 철수를 훌륭히 엄호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푸쑹현성전투후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시여 수많은 전투를 벌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5(1936)년 9월 국내에 진출하시여 백두산밀영건설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주현, 리동학 등 우수한 군사정치일군들에게 중심적령도거점을 꾸릴 임무를 주어 백두산지구에 파견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25(1936)년 9월 하순 친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성원들을 이끄시고 국내의 소백수골에 나오시여 밀영건설사업을 지도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소백수골안에 사령부밀영인 백두산밀영이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의 본거지로, 중심적령도거점으로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이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백두산밀영의 귀틀집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수많은 위성밀영들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 주변지역 인민들속에 지하혁명조직들을 내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여 백두산주변의 북부조선일대와 시지엔다오(서간도)의 넓은 지대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백두산근거지의 창설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할데 대한 남호두회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됩니다.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은 그것에 튼튼히 의거하여 국내깊이 들어가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들을 대중적인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게 되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깊이에 비밀근거지를 확대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신 후 조선

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국내각지에 파견하시여 군사정치활동에 유리한 산림지대에 여러가지 형태의 비밀근거지들을 대대적으로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창평, 풍산, 후창, 후치령, 랑림, 부전, 신흥, 창성 등 북부조선일대와 덕천, 양덕, 안주, 신평, 곡산 등 중부조선일대 그리고 태백산지구와 지리산지구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중요지대에 비밀근거지들이 수많이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 오른쪽의 지도는 1930년대 후반기 국내주요비밀근거지분포도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조직건설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범위에서 급속히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게 지하공작임무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정치공작원들과 소부대들을 북부국경일대를 비롯한 국내의 넓은 지역에 파견하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도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지하공작임무를 받으시고 신파지구를 비롯한 국내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당조직들과 조국광복회조직들을 내오시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튼튼히 묶어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 혁명가들의 사업을 세심히 지도하시는 한편 전국적, 전민족적범위에서 당조직건설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보천보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강(서강)회의에서 국내진공작전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6(1937)년 3월말 푸쑹현 시강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진공계획에 따라 주력부대는 혜산방면으로, 다른 한 부대는 안투(안도), 허룽(화룡)을 거쳐 무산방면으로 진격하고 또 다른 한 부대는 국내와 잇닿은 린쟝(림강), 창바이(장백)일대에서 적을 치도록 하는 대규모적인 작전을 펼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6(1937)년 6월 2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보천보에로 진격할데 대한 전투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즈양가이(지양개)를 떠난 주력부대는 6월 3일

밤 떼목으로 압록강을 건는 다음 보천보의 뒤산인 곤장덕에 올라 숙영하였으며 빈틈없이 전투준비를 갖추었습니다.

6월 4일 밤 10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울리신 신호총소리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일제의 경찰관주재소를 비롯한 적기관들을 순식간에 습격소탕하고 온 거리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 **《포고》**를 붙이고 격문, 삐라들을 뿌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앞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6(1937)년 6월 4일 보천보의 밤하늘에 조국광복의 홰불을 높이 올리시고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그들을 승리에로 부르는 불멸의 홰불로, 투쟁의 기치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천보에서 얻어맞고 달려드는 수많은 일제놈들을 커우위수이(구시)산과 지엔싼(간삼)봉에서 보기 좋게 족쳐버리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진행된 국내진공작전은 빛나는 승리로 끝나게 되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

과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6(1937)년 11월 10일 조선인민혁명군 대내기관지 《서광》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을 다시금 뚜렷이 밝히시고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당면임무를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6(1937)년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멍강(몽강)현 마탕거우(마당거우)밀영에서 집중적인 동기군정학습을 조직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습니다.

동기군정학습이 진행되는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강의도 하시고 대원들의 학습토론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정학습을 통하여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신 후 적극적인 군사활동에로 넘어가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입니다.

제 12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겹쌓인 난관을 헤치시며 조선혁명을 계속앙양에로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시고 조선혁명을 계속앙양에로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난파이쯔(남패자)회의를 지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7(1938)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에 걸쳐 난파이쯔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7(1938)년 11월 25일 난파이쯔(남패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선혁명을 계속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 공세를 분쇄함으로써 열하원정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조선혁명을 계속 전진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세에 대한 판단을 옳게 하며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시급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로 진출하며 광활한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3개의 방면군과 독립련대로 편성하시고 그 활동구역을 정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조직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7(1938)년 12월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난파이쯔를 떠나 압록강연안 국경지대에로 나오시는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100여일의 고난의 행군은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악착스럽게 덤벼드는 일제놈들을

족치면서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와 눈보라, 키를 넘는 눈과 참기 어려운 굶주림을 이겨가는 힘에 겨운 피어린 싸움의 나날이였습니다.

이 간고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령활한 령군술과 림기응변하는 유격전술로써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의 전과정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내외원쑤들과 싸워 승리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대오의 앞장에 서시여 힘겨운 행군길을 헤쳐나가시였으며 곤난한 때일수록 대원들을 친어버이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 차례지신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면서 그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친어버이사랑이 담긴 이 미시가루를 받아안고 용기백배하여 힘겨운 행군을 이겨냈으며 무리로 달려드는 적들을 족치면서 혁명의 사령부를 목

숨으로 지켜냈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고난의 행군과 무산지구진출을 보여주는 로정도입니다.

실로 고난의 행군의 승리는 강의한 신념과 배짱,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유격전법과 탁월한 령군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수령님을 따라 끝까지 한길을 가려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할데 대한 새로운 투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마치시고 주체28(1939)년 4월초 베이다딩쯔(북대정자)에 이르시여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를 여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이 베이다딩쯔(북대정자)회의가 진행된 곳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고난의 행군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시고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넘어가 일제침략자

들을 련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회의에서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고 새로운 혁명조직들을 내오며 광범한 애국력량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다음 군사정치활동에 유리한 백두산동북부에서 대부대에 의한 새로운 작전을 전개할데 대한 활동방향을 제시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조국으로 나오시여 무산지구진공작전을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8(1939)년 5월 18일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압록강을 건너 청봉에서 숙영하시였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건창에서, 다음날에는 베개봉에서 숙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종적을 찾아 밀림속을 헤매고있을 때에 일행천리전술로 《갑무경비도로》로 행군하여 무포에 이르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위중대와 8련대를 인솔하시고 신사동방향으로 진출하시여 몸소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진행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대홍단전투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월 23일에 몸소 대홍단벌에서 유

인매복전술로 적들에 대한 섬멸전을 벌리시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습니다.

무산지구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강대성을 다시한번 시위하고 국내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새날은 반드시 오고야만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 도록아래 왼쪽의 이 사진은 육탄으로 돌격로를 여는 김진영웅입니다.

김진영웅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28(1939)년 8월 23일 다사하(대사하)전투때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부대선회작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대부대선회작전을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백두산동북부에 진출하시여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일제침략자들은 서둘러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수십만의 군대와 경찰들을 긁어모아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과 골짜기를 살살이 뒤지면서 진드기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족치기 위하여 백두산동북부에서의 대부대선회작전을 조직령도하시였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은 밀영을 중심으로 일정한 곳에서 활동하던 종래의 유격전술과는 달리 대부대로 지정된 비밀길을 따라 넓은 곳을 끊임없이 돌면서 갑자기 나타나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고 감쪽같이 사라지며 또 놈들이 따라오면 유리한 곳으로 끌어당겨 족치는 등 다양한 전법으로 적을 타격소멸하는 류동작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부대선회작전을 힘있게 벌리시여 류커쑹(륙과송)전투와 쟈신쯔(쟈신즈)전투, 다마루거우(대마록구)목재소습격전투, 홍치(홍기)하전투들에서 일제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부대선회작전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적극적인 분산활동을 과감히 전개하시여 일제의 전례없는 대규모의 《토벌》공세를 최종적으로 격파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9(1940)년 봄과 여름에 조직진행하신 소부대에 의한 적극적인 분산활동은 항일무장투쟁이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는데서 하나의 중요한 시험적단계로 되였습니다.

제 13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샤오하얼바(소할바)령회의를 지도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29(1940)년 8월 10일 둔화(돈화)현 샤오하얼바(소할바)령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정세발전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신데 기초하여 주체29(1940)년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둔화현 샤오하얼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정세는 우리들에게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일본제국주의를 멸망시키기 위한 최후결전준비를 잘하며 해방된 조국땅우에 혁명적당과 인민정권, 인민무력을 창건하고 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면서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키우는것이며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보고에서 이 전략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부

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데 대한 새로운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선과 만주의 광활한 지대에서 소부대군사활동을 령활하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부대군사정치활동과 대중정치사업을 적극 벌리면서 모든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이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백두산지구의 비밀근거지에 사령부를 두고 활동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와 소조들의 군사정치활동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9(1940)년 9월에 간백산밀영

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소부대들과 소조들의 임무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소부대와 소조들이 의거하여 활동할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인 림시비밀근거지를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국내각지에 소부대와 소조들을 파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향에 따라 만저우(만주)의 넓은 지역과 경흥, 웅기, 라진, 무산 등 북부조선일대는 물론 국내종심깊이에 이르는 전국각지의 전략적요충지들에 많은 림시비밀근거지들이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 오른쪽의 지도는 1940년대 전반기 주요국내혁명근거지 분포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림시비밀근거지들을 찾으시여 소부대와 소조들의 활동을 료해하시고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백두산밀영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국내에 진출하시여 소부대활동을 조직령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1(1942)년 6월 백두산밀영에 오시여 아드님을 품에 안으시고 총포성이 울부짖는 가렬한 전장에서 탄생하신 아드님의 장래를 뜨겁게 축복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의 기상이 넘쳐나는 아드님의 준수한 얼굴을 이윽토록 들여다보시다가 김정숙어머님께 후대들을 잘 키워서 혁명의 대를 잇게 하자고 하시면서 백두산에서 높이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를 후대들이 대를 이어 들고나가도록 하는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앞두고 소부대활동을 강화하시는 한편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간부들과 대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군정훈련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군정훈련강령을 작성하고 훈련기지들을 더 잘 꾸리는 등 군정훈련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시고 군정학습과 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또한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로 무장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정치학습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창건준비를 완성하며 조국광복회조직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이

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들은 조선과 만주의 광범한 반일대중속에 들어가서 적들에 의하여 파괴된 조국광복회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며 그것을 확대발전시키는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조직을 정비확대하기 위하여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의 넓은 지역은 물론 만저우와 일본의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고 몸소 백두산 동북부와 북부조선의 여러곳을 다니시며 그들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항일혁명투사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의 소박한 귀틀집에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치렬한 싸움터에서 첫 걸음마를 떼시였고 만사람의 기대와 축복속에서 성장하시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칭

송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의 귀틀집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이 사진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백두산3대장군을 높이 칭송하여 나무에 쓴 구호문헌입니다.

제 14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령도하시여 항일혁명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적력량에 의거해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일제격멸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준비를 완성하시였습니다.

1940년대 중엽에 이르러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벌릴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습니다.

1945년 5월 9일 파쑈도이췰란드의 무조건항복은 동맹국이였던 일제의 최후멸망을 더욱 촉진시키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변화되는 나라안팎의 정세를 깊이 헤아려보시고 주체34(1945)년 5월 10일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의 총적 목적과 기본형식, 력량편성, 련합작전문제 등 최후공격작전방향과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6월초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의 간백산밀영에 오시여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밀영에 집결한 부대들이 최후결전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출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준비는 보다 짧은 기간에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성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일제놈들과 마지막판가리싸움을 할 작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때 조선인민의 마음은 한결같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우리에게 쏠리고있으며 조선의 깊은 산속에는 우리와 련계를 가지고 반일성전에 나서려고 숨어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국내에서 보내온 통보자료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힘으로 일제를 때려엎고 조국을 해방할것을 타산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무르익혀오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주체34(1945)년 7월 30일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발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전계획에 따라 부대의 전투서렬을 재편성하시고 우수한 군사정치일군들로 중요도시들과 지구별책임자들을 임명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평양과 평안남도지구에 진출하여 최후공격작전전반을 지휘할것을 계획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후결전시각이 다가옴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현대적군사기술을 소유하는데 기본을 두고 군사훈련을 맹렬하게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협동작전훈련을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래의 이 사진은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입니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과 무장봉기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무장봉기에 떨쳐나설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무

장봉기로 호응할것을 토의하는 조국해방단 성원들입니다.

평양일대에 조직된 조국해방단은 혁명적인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망라한 무장봉기조직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합세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킬것을 주되는 목적으로 삼고 평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중서부의 공장, 농촌지대들에 들어가 조직을 확대해나갔습니다.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봉기조직들은 성천, 황주, 금천, 벽성, 통천, 이천, 서울 등 중부조선일대와 함경남북도, 남부조선일대의 여러 지방에서도 조직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적혁명력량에 의한 조국해방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8일 밤 최후공격작전에 앞서 적의 국경요새구역의 여러 군사요충지들을 불의에 습격하여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전부대에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이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총공격에로 넘어갔습니다.

간백산밀영을 최후공격작전의 출발진지로 차지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소부대, 소조들, 전민항쟁조직들과 함께 각 도들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두만강연안에 집결된 부대들은 일시에 적의 국경요새들을 돌파하고 경원, 경흥일대를 해방하였으며 선봉방향으로 계속 전과를 확대하여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안상륙부대의 선견대로 활동하던 일부 부대들은 지상부대와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선봉에 상륙하여 청진일대로 진격하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이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일제침략자들을 무찌르며 웅기(선봉)에 상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진격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작전전반을 지휘하시는 한편 나라의 중요지대들에 락하할 부대들을 비행장에 대기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전에 합세하여 인민들을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맹렬한 공격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전민항쟁에 의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일제는 최후공격작전이 시작된지 1주일만인 8월 15일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는 무너지고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빛나게 성취되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은 조선인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패망당한 일제침략자들의 가련한 몰골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조국해방위업의 빛나는 실현은 선군의 기치밑에 20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집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의의는 조국해방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새 사회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조선혁명을 앞으로 계속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였다는데 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성의 기치, 주체의 기치밑에 승리하는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과정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인 주체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립되고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 이룩되였으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창조되였습니다. 항일의 혁명전통에는 끝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와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겨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체계와 백두의 혁명정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습니다.

주체의 혁명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주체의 사상체계와 백두의 혁명정신입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깊고도 억센 력사적뿌리이며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며 당과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전통입니다.

제 15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시여 새 조국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해방된 조선이 나아가야 할 참다운 길을 밝히시고 우리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된 조선이 나아가야 할 참다운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민족재생의 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20일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로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새 조국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은 혁명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키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과업은 당을 창건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며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하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3일 평양로농정치학교 학생들앞에서 하신 강의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에서 인민대중에게 하루빨리 조선이 나아갈 옳바른 길을 가리켜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도록의 로작을 가리키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이길만이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의에서 진보적민주주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놓여있는 조선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새형의 민주주의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사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수많은 항일혁명투사들을 여러 지방에 정치공작원으로 파견하시고 그들의 사업을 세심히 지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갈림길에서 고향 만경대를 바라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9일 항일의 나날 어느 하루도 잊으신적이 없는 그리운 고향 만경대를 곁에 두시고도 새 조국건설에서 기둥이 될 로동계급을 먼저 만나 나라일을 의논하시기 위하여 곧바로 강선으로 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4(1945)년 10월 9일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공장을 빨리 복구함으로써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줄데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은 강선의 로

동계급은 새 조국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전민족이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34(1945)년 10월 14일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주체34(1945)년 10월 14일 온 나라가 감격과 환희로 들끓는 가운데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열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면서 해방된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국광복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한 오늘 조선인민앞에는 새 조선을 건설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부터 자기의 국가를 세우고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건국사업을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조선민족이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합칠 때는 왔다고 하시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이 끝나자 대회장은 또다시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으로 끓어넘쳤습니다.

이날의 기쁨과 감격은 곧 온 나라 인민의 기쁨이며 감격이였습니다.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뜻깊은 모임들이 계속 열리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개선문광장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개선연설 친필교시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조국개선을 온 민족이 커다란 기쁨과 감격으로 열렬히 환영한데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전체 조선인민앞에 첫인사를 하시고서야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20년만에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할머님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0년만에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여 할아버님, 할머님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조국개선을 기념하여 세운 개선문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은 주체34(1945)년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조국개선도 끝없는 기쁨속에서 맞이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조국개선과 투쟁업적을 소개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 조국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새 사회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습니다.

제 16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그 두리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당을 창건하시고 그 두리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을 창건하시고 대중적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당을 창건하시고 당의 조직로선과 정치로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형의 혁명적당 공산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기 위하여 먼저 당을 창건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단

련되고 육성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국내외의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통일적인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고 몸소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당창건준비사업을 지도하시는 한편 항일혁명투사들을 여러 지방에 내보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4(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력사적인 당창립대회를 여시고 보고에서 당의 조직로선과 정치로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조직로선에서 당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고 우리 당을 무산계급의 토대우에 튼튼히 선 대중적당으로 만들데 대하여 규정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실현하고 당안에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규률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것을 규정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정치로선에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것을 당의 기본정치과업으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4대당면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시고 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

시였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의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국내외의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당을 창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은 빛나게 완수되였습니다.

도록에 인용한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서 보는것처럼 우리 당의 창건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이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에 걸치는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청사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초안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반대하는 종파분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을 조직사

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해주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관철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5(1946)년 8월 29일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를 여시고 공산당을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의 두리에 인민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동맹을 비롯한 대중단체를 무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대중단체들을 광범히 조직하고 로동자들은 로동자조직에, 농민들은 농민조직에, 청년들은 청년조직에, 녀성들은 녀성조직에, 문화인들은 문화인조직에 망라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을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

하여 평양과 신의주, 해주를 비롯한 여러곳에 나가시여 군중집회에서 연설도 하시고 그들과 마주앉아 이야기도 나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북조선민주청년단체대표자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국적청년들은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는 구호밑에 공청을 주동적으로 해산하고 대중적청년단체인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분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주체35(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을 무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북조선민주청년동맹창립을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시위장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미래인 청년들과 청년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살뜰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소년단원들의 지성어린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어주신 조선소년단창립행사와 소년단원들의 경축시위장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 6일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소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나라 소년들의 혁명적인 대중조직인 조선소년단을 무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7월 북조선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대표회의에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를 내오시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도표는 근로단체들과 민전산하에 군중이 망라된 정형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을 창건하시고 그 두리에 대중단체들을 묶어세우심으로써 새 사회건설을 다그칠수 있는 대중적지반을 마련하실수 있었습니다.

제 17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광복후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제반 민주개혁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혁명의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해결하시고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시여 우리 식의 인민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우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사무실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에 중앙주권기관을 내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민주주의적중앙주권기관을 세우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침략군과 미제에 의하여 파괴된 서울시인민위원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의 민족분렬책동으로 하여 당장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울수 없는 실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북조선에 중앙주권기관으로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창설하기 위하여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구성과 조직체계를 정비강화하도록 하시였고 북조선행정10국을 조직하도록 하시면서 그 준비사업을 다그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2월 8일 북조선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협의회를 여시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들로써 북조선중앙주권기관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시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을 망라하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11개조 당면과업과 《20개조정강》에서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 《20개조정강》의 친필원고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제반 민주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토지문제해결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헤아리시고 여기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평안남도 대동군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신데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시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일제놈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의 토지를 빼앗아 땅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심으로써 농민들의 평생소원을 풀어주시였습니다.(도록의 구호를 가리키면서)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5(1946)년 8월 10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2차회의에서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공장은 로동자에게》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8월 10일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시여 일제와 그 앞잡이들이 가지고있던 모든 공장과 광산, 발전소들과 철도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을 빼앗아 나라와 인민의 재산으로 만드시였습니다.(도록의 구호를 가리키면서)

○ 도록아래의 도표는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간부문제를 해결하며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창덕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인민의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과 삼흥중학교를 보여주는 사진자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간부문제를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그 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을 창립하시였으며 종합대학을 모체로 하여 수많은 대학을 내오시였고 전문학교의 수도 늘이고 야간 및 통신교육체계도 세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6(1947)년 7월 4일 평양제2인민학교를 찾으시여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양제2인민학교(당시)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을 찾으시여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시면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증산경쟁운동과 문맹퇴치운동을 적극 추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1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3차확대위원회에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5(1946)년 5월 21일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자연개조의 첫 사업으로서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주체35(1946)년 5월 21일 몸소 착공식에 나오시여 첫삽을 뜨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양시민들은 일제가 10년이나 끌면서도 해내지 못한 공사를 단 55일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맹퇴치운동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38(1949)년 3월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문맹을 완전히 가신 나라로 되였습니다.

도록 오른쪽에 인용한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서 보는것처럼 제반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는 인민민주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조국통일의 기초로 될 혁명적민주기지가 세워졌으며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물질적조건이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제 18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세우시고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 과업수행을 위한 투쟁을 이끄신데 대하여 그리고 정규화된 혁명군대와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7(1948)년 3월말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를 여시고 대회보고에서 과도기 첫 시기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 당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과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7(1948)년 3월 28일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로작이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

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세우시고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 과업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승리적으로 끝내신데 뒤이어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의 과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주체36(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전체 인민을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며 가운데 모신 사진은 농민들과 함께 모를 꽂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이 사진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황해제철소(당시) 로동자들속에 들어가시여 증산투쟁의 불길을 지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모도 함께 꽂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주체36(1947)년과 주체37(1948)년 두차례의 인민경제계

획을 빛나게 수행하고 주체38(1949)년—주체39(1950)년 2개년인민경제계획도 전반적으로 앞당겨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자체의 힘으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열병식 주석단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첫날부터 자체의 힘으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시고 보안간부훈련소들과 조선항공협회, 수상보안대를 조직하시여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워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자립적병기공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 첫 병기공장이 조직되고 주체36(1947)년 10월 초순에는 자체의 힘으로 첫 기관단총시제품을 생산하게 되였습니다.

선군의 의지로 마련된 이와 같은 빈틈없는 준비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2월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정규적혁명무력이 건설되고 그 전투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어떤 침략자도 때려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혁

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있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 사진들은 평양학원창설과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군사정치훈련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단독선거를 파탄시키고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7(1948)년 4월 21일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1948년에 들어서면서 단독선거놀음을 벌려 괴뢰정권을 만들려고 미쳐날뛰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37(1948)년 4월에 남북련석회의를 여시고 정치보고를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선을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제의 책동을 짓부시고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전체 조선인민들의 투쟁과업에 대하여 밝

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평양시 쑥섬혁명사적지에 세운 통일전선탑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습니다.

○ 도록 오른쪽 우의 이 사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국기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울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37(1948)년 8월에 실시된 남북조선총선거는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9월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를 여시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채택하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내각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조직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부정강에서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며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37(1948)년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면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모든 통일애국력량을 하나의 주체적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그리고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쟁도발책동과 무력침공을 감행하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1950년에 들어서면서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전쟁도발책동은 더욱 빈번해져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급한 정세가 조성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준비시키시는 한편 평화적조국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과 대책들을 련이어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평화적조국통일방안을 거부하고 끝내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길로 나갔습니다.

제 19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로 당과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이끄시여 공화국북반부에 쳐들어온 미제무력침공자들을 쳐물리치고 남반부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시였습니다.

오래동안 침략전쟁을 준비하여온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1950년 6월 25일 38°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각비상회의를 여시고 인민군대에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갈것을 명령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

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은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이리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실은 신문보도자료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39(1950)년 6월 26일 전체 조선인민에게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6월 26일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방송연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송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자신의

힘으로 공화국을 사수하며 남반부를 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강력한 전시지휘체계를 세우시였으며 모든 력량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시였습니다.(도록의 구호를 가리키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수십만의 청년학생들이 전선으로 탄원하였으며 나어린 소년단원들도 전선원호에 떨쳐나섰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이 전선으로 탄원하는 청년들이며 그리고 이 사진은 전선원호를 결의하는 소년단모임장면입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짧은 기간에 온 나라가 전시체제로 넘어가고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결속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남반부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반공격작전을 현명하게 조직지휘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

시였습니다.

《…우리의 전략계획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대병력이 동원되기 전에 리승만괴뢰군대와 이미 우리 강토에 침입한 미군을 짧은 기간에 소탕하고 인민군대가 부산, 마산, 목포, 려수, 남해계선까지 진출하여 우리 조국강토를 완전히 해방하며 우리의 무력을 전국각지에 기동성있게 배치함으로써 미제의 증원부대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계획은 미제가 대병력을 끌어들이기 전에 적들을 철저히 소탕하고 남반부 전지역을 해방하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인민군부대들은 반공격에로 넘어가 전쟁이 일어난지 3일만에 적의 소굴인 서울을 해방하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이 서울을 해방하고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인민군땅크병들입니다.

6월 28일 서울을 해방한 인민군련합부대들은 련속타격전을 벌려 인천과 수원을 해방하였습니다.

인민군대의 진격에 겁을 먹은 미제침략자들은 비행기와 함선을 비롯한 수많은 군대를 전쟁마당에 끌어들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7월 8일에 하신 방송연설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에서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미제침략자들을 철저

히 격멸소탕할것을 호소하시였습니다.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을 가리키면서)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대전해방전투를 작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비속을 헤치시고 몸소 전선사령부에 나가시여 대전해방작전을 령활하게 조직지휘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도세밀한 작전계획과 지휘밑에 인민군부대들은 대전포위작전을 벌려 《상승사단》이라고 자랑하던 미제침략군 제24보병사단을 괴멸시키고 주체39(1950)년 7월 20일에는 대전을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이 대전해방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8월초 또다시 충청북도 충주남쪽 수안보에 있는 전선사령부를 찾으시고 인민군부대들의 군사행동방향과 전법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포연자욱한 문경고개에 오르시여 인민군전사들을 승리에로 고무하시면서 그들의 생활과 건강에 대하여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최전선에 나가시여 새로운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선지도에 끝없이 고무된 인민군부대

들은 전쟁이 일어난지 불과 한달반사이에 남반부땅의 90% 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이 인민군용사들의 락동강도하전투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략도는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 략도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남반부인민들에게 새 제도, 새 생활을 안겨주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면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위한 광주군 언주면 대표자회장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반부해방지역에 새로운 민주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우수한 간부들과 정치일군들을 수많이 보내시여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도와주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들을 내오게 하시였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여 억눌려 살아온 남반부인민들에게 새 제도, 새 생활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자료는 남반부인민들이 제반 민주개혁실시를 열렬히 환영한데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남반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일떠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반부의 청년

학생들이 의용군에 입대하여 미제를 조국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떨쳐나섰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이 전선으로 나가는 의용군부대입니다.

제 20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선의 승리를 이룩하며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새로운 반공격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고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신데 대하여 그리고 적극적인 진지방어와 당대렬의 강화를 위한 투쟁, 전시생산과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반공격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전국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반공격을 위한 준비를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락동강계선에서의 인민군주력부대와 인민들의 조직적후퇴를 성과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공격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조선인민군부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시는 한편 적들이 강점한 지역에 강력한 제2전선을 펼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적후부대들은 황해도와 강원도, 평안남도 등 중부조선의 넓은 지역에 제2전선을 펼치고 적들에게 드센 불벼락을 안기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불과 한달동안에 새로운 반공격에로 넘어갈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되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용감한 소년근위대 대원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나어린 소년단원들도 적후에서 소년근위대를 무어 원쑤놈들을 족치며 용감히 싸웠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 제3계단의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

시였습니다.

《전쟁의 제3계단은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적의 유생력량을 대량적으로 섬멸하면서 적들을 38선이남까지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력량을 정비강화하며 다른 편으로는 적의 력량을 부단히 소멸하는 전투를 진행하여 적을 약화시킴으로써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쟁취할 준비를 하는 계단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쟁3계단의 전략적방침은 적의 침략무력을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적의 력량을 소멸하며 우리의 력량을 강화하여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 제3계단의 전략적방침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주체39(1950)년 11월 하순 인민군부대들에 전전선에서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총반공격에로 넘어갈것을 명령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미제침략자들을 족치며 남으로 진격하는 인민군용사들을 고무격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작전적방침에 따라 아군련합부대들은 청천강부근과 장진호반에서 적에 대한 포위섬멸전을 벌려 놈들을 쓸어버렸으며 동해안을 따라 진격하던 부대들은 적들을 함흥지구에 몰아넣고 족치였습니다.

적후에서 싸우던 제2전선부대들도 반공격하는 전선부대들과 함께 적들의 뒤통수에 불벼락을 안기였습니다.

진격에 진격을 거듭하던 인민군부대들은 주체39(1950)년 12월말에는 북반부의 모든 지역과 남반부의 일부 지역까지 해방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9(1950)년 12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여시고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전선과 후방을 튼튼히 다지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당면과업들을 밝히시면서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하여 당과 국가 및 군사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게 하시였습니다.

특히 종파분자들이 군사분야에 끼쳐놓은 사대주의, 교

조주의의 후과를 빨리 가시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을 활용하여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방을 복구정비하고 정치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나가시였으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도 세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보살피심속에서 마음껏 배우고있는 원아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국렬사유가족, 인민군대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돌보아주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부모잃은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곳에 애국렬사유자녀학원과 초등학원, 애육원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학생들이 마음껏 공부를 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다 지어주시였습니다.

실로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려운 전쟁시기에도 굶어죽고 얼어죽는 사람은 물론 거리를 헤매는 고아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 제4계단의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선차적임무는 전선을 공고히 하는것입니다. 미제의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책동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이 장기성을 띠게 된 조건에서 완강한 진지방어전을 하여야 합니다.》

미제는 전쟁 1년간에 정치도덕적으로, 군사적으로 크게 얻어맞고 제놈들이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38°선계선에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벌려 이미 차지한 계선을 튼튼히 지키면서 적을 끊임없이 타격소멸하는 한편 시간을 얻어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한층 강화하고 후방을 공고히 함으로써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는것을 전쟁 제4계단의 전략적방침으로 내놓으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벌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갱도진지굴설작업현장을 현지지

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지를 갱도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벌리기 위한 주체적인 갱도전법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새 전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대담하게 적용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전법에 의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든든한 갱도진지에 의거하면서 적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줄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하기 및 추기공세》를 짓부시였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1951년 9월말부터 《추기공세》를 감행하였습니다.

적들의 공세를 짓부시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것은 1211고지방위전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0(1951)년 9월 하순 몸소 포연탄우속을 헤치고 최전연에까지 나오시여 1211고지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안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전선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신지 며칠 안되는 어느날 깊은 밤 현지의 군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지에서 싸우는 전투원들의 건강과 생활을 잘 돌봐주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적들은 1211고지를 돌파하려고 하루에도 3만～4만발의 포탄과 폭탄을 퍼부으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 영웅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이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고지 1211고지를 피로써 지켜싸우고있는 인민군용사들입니다.

1211고지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부대의 돌격로를 열기 위하여 적의 화점을 가슴으로 막았고 고지를 사수하기 위하여 두팔을 쓰지 못하게 되자 턱으로 중기의 압철을 누르면서 조국의 고지를 목숨으로 지켜냈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리수복영웅과 조국의 고지를 지켜 용감히 싸운 조군실영웅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1211고지를 빼앗고 우리 나라의 후방길이 쳐들어오려던 미제침략자들의 어리석은 기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전법과 탁월한 령군술, 인민군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또다시 산산이 부서지고말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전시생산과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조직사업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고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함들에 대하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보고와 결론에서 당조직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을 전면적으로 비판하시고 당대렬을 확대강화하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 가운데 이 로작 《현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1(1952)년 2월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당지도일군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인민정권의 성격과 특징을 밝히시고 전시조건에 맞게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생산과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에 큰 힘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을 늘이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대동군 원화리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동군, 숙천군, 강서군을 비롯한 여러 농촌들에 나가시여 농민들을 전시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공업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군수품과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도록 오른쪽우에 인용한 교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공장들은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며 군수품과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들은 전시 무기생산과 식량증산투쟁에 떨쳐나선 군수공장과 농촌청년들입니다.

군수공장 청년들과 로동자들은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 전선에 보내기 위하여 전기가 오지 않을 때에는 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포탄을 깎았습니다.

수송전사들도 적들의 포격과 폭격속에서도 전시수송을 보장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한창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을 때 벌써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고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을 추진시키시였습니다. 그리고 몸소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전후복구건설문제에 대하여 의논하시

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1(1952)년 6월 21일 락원기계제작소 주철직장 당세포총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1(1952)년 6월 하순 락원기계제작소 주철직장 당세포총회에 몸소 참가하시여 한 녀성당원의 소박한 말속에서 우리 인민의 강의한 의지를 보시고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시였습니다.

제 21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신데 대하여 그리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앞으로 결정적인 국면에 가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당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강화에 선차적관심을 돌리시고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결과 모든 군인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 각오를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지휘관, 정치일군들의 군사정치적자질을 높이고 전투정치훈련을 실속있게 하며 무장장비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중대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로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필하신 《인민군대를 강화하자》 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1(1952)년 12월 조선인민군 고급군관회의에서 하신 이 력사적인 연설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주체의 전쟁리론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공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1(1952)년 12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1(195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여시고 **《당의 조직적사상적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도록의 로작을 가리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굳건히 다지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후 전원회의문헌토의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당원들의 당성이 높아지고 당의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박헌영, 리승엽간첩종파도당이 감행한 반당반혁명적죄행이 낱낱이 폭로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신공세》기도를 짓부시기 위하여 주체42(1953)년 1월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보내도록 하시였습니다.

편지는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결사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해안의 해안방어를 맡은 부대들의 장병들을 찾으시여 바다와 공중으로 침입하는 적은 바다와 공중에서, 지상으로 들어오는 적은 방어전연 전방에서 소멸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전술적방침과 현지지도에 고무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모두다 적을 섬멸하는 결사전에로!》**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결

사전에 한사람같이 일떠섰습니다. (도록의 구호를 가리키면서)

그리하여 원쑤들의 그 어떤 침공도 단매에 요정낼수 있는 전투태세가 갖추어지고 전선과 후방은 철벽의 요새로 전변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국해방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반타격전을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인민군부대들에 미제침략자들에게 전전선에 걸쳐 강력한 군사적타격을 가할것을 명령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42(1953)년 5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세차례에 걸쳐 강력한 타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는 통쾌한 전투들이였습니다.

여기에서 큰 의의를 가진것은 351고지공격전투였습니다.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용사들은 강력한 포병화력의 엄호밑에 돌격으로 넘어가 놈들이 《불락의 요새》라고 떠벌이던 351고지를 단 15분만에 완전히 점령하였습니다.

인민군부대들은 세차례의 집중적인 타격전에서 적의 막대한 유생력량을 소멸하고 340여㎢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

에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세상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준엄하고 가렬한 전쟁이였습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과 15개의 추종국가군대, 남조선괴뢰군을 포함한 모두 200여만의 군대와 수많은 전투기술기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투쟁에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결국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전과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더는 전쟁을 계속할수 없게 된 미제는 부득이 1953년 7월 27일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하여 3년간에 걸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고지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여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고있는 인민군용사들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2(1953)년 7월 28일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주체42(1953)년 7월 2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성대한 군중대회가 열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연설에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공화국영웅들속에 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오직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1953. 2. 7)와 공화국영웅칭호(1953. 7. 28)를 받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이 사진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을 기념하여 세운 전승기념탑 중심주제상인 《승리》상입니다.

제 22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후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그리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후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우리 나라의 형편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나라의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였으며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2(1953)년 7월 28일 력사적인 방송연설에서 **《모든것을 민주기지강화를 위한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에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으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중간구호를 짚으면서)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2(1953)년 8월 3일 강선제강소 로동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선제강소(당시)를 비롯한 여러 공장과 농촌에 나가시여 파괴된 공장과 농촌경리를 일떠세우실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42(1953)년 8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2(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를 여시고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

을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이 로선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을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

시였습니다.

《3개년계획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심히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인민경제를 전쟁전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을 퇴치함으로써 앞으로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것이 예견되여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대책과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3개년인민경제계획의 주요과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조국의 방선을 튼튼히 지키면서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에 동원시키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여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수도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을 고무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양시복구건설장들을 찾으시여 영웅의 도시 평양시를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설하라고 건설자들을 고무하시면서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혁명의 수도 평양시복구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입니다.

○ 도록아래의 이 도표는 3개년인민경제계획의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이끄심밑에 우리 인민들은 전후 3개년인민경제계획을 2년 8개월만에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업과 농업생산은 전쟁전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되였고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데 대한 강령을 펼쳐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4(1955)년 4월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4월테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4(1955)년 4월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현계단에 있어서

우리 당앞에 나선 기본임무는 로동자, 농민의 동맹을 더한층 강화하면서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쟁취한 성과들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의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어려워진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전후농업협동화에 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업협동화의 방침은 농촌경리의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협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몇개의 단계를 설정하시고 이 운동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4(1955)년 7월 25일 장강군 종포리농업협동조합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3(1954)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론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의 경험적단계에서 얻은 성과를 총화하시고 이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릴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

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시수공업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은 매우 순조롭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였습니다.

○ 도록의 이 문헌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에서 사상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교조주의, 형식주의와 그 해독성을 분석하시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히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6(1957)년 10월 10일 벽동군 동주중학교 학생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6(1957)년 가을 두메산골농민들의 생활을 보살피시기 위하여 수풍호의 배길로 동주리앞을 지나시다가 호수가에서 뛰놀던 학생들이 먼발치에서 부르는 만세소리를 들으시고 배머리를 돌리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제 23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시고 우리 나라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당 제3차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앞길을 밝히시고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쓸어버리신데 대하여서와 천리마운동을 창조하시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신데 대하여 그리고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 제3차대회를 지도하시고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이끄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를 여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45(1956)년 4월 23일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5(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를 여시고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첫번째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회에서 하신 보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밝히신 후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는 전후에 거둔 모든 성과들에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와야 할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부문들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공업화의 기초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며 경공업과 농업생산을 새로운 수준에로 높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속 향상시켜야 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으며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과업과 당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을 대회결정 관철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주체45(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 당을 정면에서 공격하여나선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폭로분쇄하시고 종파분자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회의후 종파잔당을 쓸어버리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인민들은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6(1957)년 8월 27일 강서군 태성리농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6(1957)년 8월 남포로 가시던 길에 태성리에 들리시여 한 농촌할머니의 소박한 말에서 당과 수령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고 힘을 얻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혁명적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마운동을 창조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5(1956)년 12월 28일 강선제강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5(1956)년 12월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의 두번째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우리 근로자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열의는 전례없이 앙양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가 일어나고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시작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후 강선제강소(오늘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나라의 어려운 형편과 혁명의 요구를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세워주시였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에 충실해온 강선의 로

동계급은 수령님의 교시 관철을 위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펴올리신 천리마운동의 첫 불길이 강선에서 높이 타올랐습니다.

도록아래의 사진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강선의 로동계급은 년간 6만t밖에 생산할수 없다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하였으며 김책제철소(당시)로동계급은 19만t의 능력을 가진 설비로 27만t의 선철을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는 이렇게 일어났고 그 과정에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발단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8(1959)년 2월 다시 강선에 나가시여 천리마운동을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발전시켜주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는 주체47(1958)년 8월에 승리적으로 끝났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이 주체48(1959)년 1월 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와 함께 수공업자들과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여러가지 협동경리에 망라시켜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하여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8(1959)년 6월 5일 원산철공생산협동조합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이끄심밑에 우리 나라에서 수공업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도 농업협동화의 완성과 함께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혁명이 전반적으로 승리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가장 선진적인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튼튼히 세워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7(1958)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더한층 높이기 위한 새로운 투쟁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이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불사를데 대한

선전화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선제강소, 황해제철소, 룡성기계공장 그리고 기양과 덕천을 비롯한 온 나라의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우리 인민들을 창조와 혁신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일어났습니다.

기양과 덕천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뜨락또르는 30여일만에, 자동차는 40일만에 만들어냈으며 락원과 룡성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온갖 난관과 애로를 물리치면서 굴착기와 불도젤, 《락원1》호대형양수기와 8m타닝반, 3000t프레스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에는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 앞장에 서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이 보람찬 사회주의건설장으로 떠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천리마의 속도로 내달려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 앞당겨 수행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

시였습니다.

《5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은 승리적으로 실현되고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되였습니다.》

5개년계획이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도표가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된 모습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당의 군대로 준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하는데서 앞장서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의 네번째 로작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7(1958)년 2월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관하 장병들앞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연설에서 인민군대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라는데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

시면서 인민군대가 계승하여야 할 유일한 전통은 항일유격대의 전통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도서들을 수많이 출판하며 인민군대안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 도록의 세번째 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7(1958)년 11월 전국 시, 군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사회주의제도수립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모든 사업은 다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문제와 결부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모든 사람들속에서 사회주의교양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이 나날에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사회주의적으로 변모되여갔으며 집단주의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되였습니다.

제 24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위한 웅대한 과업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당 제4차대회에서 새로운 투쟁과업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주체적당사업리론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지도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50(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50(1961)년 9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여

시고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회에서 하신 보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자랑찬 승리를 총화하시고 제1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꾸리며 모든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전면적기술개건을 다그쳐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보고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과업,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 우리 당의 자주적대외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이후 전당과 전체 인민을 7개년계획수행과 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

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제1차 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증산투쟁으로 들끓고있는 김책제철소(현재 김책제철련합기업소)입니다 .

그리고 그우의 사진은 당 제4차대회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소개한 로동신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세우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강서군 청산리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9(1960)년 2월 청산리와 강서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발전시킨 과학적인 대중지도사상과 방법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세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50(1961)년 12월 6일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0(1961)년 12월에 몸소 대안전기공장에 나가 얼마동안 계시면서 공장의 모든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과정에 공장관리운영에서 심중한 결함들이 있다는것을 포착하시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내오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경제관리에 구현한 사업체계라는데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0(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에 대한 지도에 뒤이어 숙천군을 현지지도하시는 과정에 군인민위원회를 통하여 농촌경리를 지도하던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여 도에는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내오고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고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51(1962)년 12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가 열리던 때 나라안팎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였습니다.

1962년 10월 미제는 꾸바에서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후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해나갔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주체51(1962)년 12월에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를 여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킨다는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고 다같이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도록가운데 있는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이 당의 새 전략적방침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총대우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주체의 혁명원리에 기초한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전당, 전군, 전민을 국방력강화를 위

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방력에서 핵심력량인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인민군병사의 무장상태를 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2(1963)년 2월 몸소 최전연의 인민군부대를 찾으시고 《**일당백**》의 구호를 들도록 하시였으며 모든 군인들이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준비를 잘 갖추도록 구체적지도를 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치사상교양사업과 함께 군사훈련이 더욱 강화되여 군인들 누구나가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자라날수 있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녹아난 미국놈들의 가련한 몰골과 그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미제는 1968년 1월에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그후에는 대형간첩비행기《EC－121》의 침입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파괴행위를 계속하였으나 우리 인민군대는 그때마다 적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인 로선의 커다란 생활력과 일당백으로 준비

된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은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튼튼히 다져나가는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나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3(196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원회의에서 내놓으신 농촌테제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바로 농촌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강령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의 성과적해결을 위한 기

본원칙들을 명확히 밝히시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를 없애고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할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신 후 벌방지대는 말할것도 없고 먼 북쪽의 두메산골이며 동해바다가의 자그마한 농촌마을까지 찾으시여 현지에서 농촌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이끄심밑에 농촌테제가 빛나게 실현되여감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은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3(1964)년 5월 민청 제5차대회에서 민청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민청 제5차대회 참가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청 제5차대회에 몸소 참가하시여 청년들을 주체사상과 우리 당 정책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을 사로청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제 25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우리 인민을 혁명적 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지도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55(1966)년 5월 3일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제철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아래에 대한 지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지도방법을 실천적으로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이 나아갈 길을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대표자회를 지도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55(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주체55(1966)년 당대표자회가 열리던 때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이 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로골화되였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사회주의운동안에서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심하였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당의 원칙적인 대내외활동방침을 정확히 세우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긴절한 력사적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체55(1966)년 10월 당대표자회를 여시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첫번째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다음으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방침과 투쟁과업들을 다시금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6(19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을 폭로비판하시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두번째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6(1967)년 5월 25일 당사상사업부문 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그리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구호입니다.(도록의 구호를 가리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 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과 당중앙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 대오로 다져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에서 주도적부문인 중공업건설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그리고 경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룡성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6(1967)년 6월 룡성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룡성의 로동계급을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룡성의 로동계급이 일으킨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의 네번째 로작 《당면한 경제사업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6(1967)년 7월 3일에 발표하신 로작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당대표자회결정관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은 온 나라에 타번졌습니다. 그속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는 깨여지고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습니다.

주체56(1967)년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난 력사적인 해로 되였습니다.

○ 도록의 세번째 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6(1967)년 5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과도기계선문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존속문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징표와 그 실현을 위한 과업,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문제 등에 대하여 새로운 과학적해명을 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57(1968)년 4월 전국청년총동원대회에 참가한 청년대표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7(1968)년 4월 전국청년총동원대회를 여시고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청년들이 앞장에 설데 대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우리 청년들을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8(196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전원회의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당제5차대회를 맞으며 7개년계획을 완수할것을 호소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우리 학생소년들이 꼬마계획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라에 바친 《소년》호전

기기관차와 《소년》호뜨락또르증정식장면입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은 주체58(1969)년 4월 16일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는 속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였으며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주체59(1970)년 10월 현재 공업생산을 전해에 비하여 131%로 높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당의 정확한 공업화로선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당의 현명한 령도 그리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이며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나라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었습니다.

그리하여 보통 자본주의나라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

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려운 과업을 우리 나라에서는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끝냈습니다.

○ 아래의 도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결과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제 26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강령을 펼쳐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웅대한 강령을 내놓으신데 대하여 그리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새로운 투쟁과업들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59(1970)년 11월 2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9(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여시고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회에서 하신 보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기 위한 투쟁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

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6개년계획은 기술혁명의 새로운 리정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과 함께 인민경제 부문별과업을 밝히시면서 사회주의문화건설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세계혁명을 추진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키며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도 밝혀주시였습니다.

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시고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제정발포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0(1971)년 8월과 9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대렬을 늘이는데서 가정환경이 복잡한 사람들도 본인이 당에 충실하면 대담하게 당에 받아들이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들도 대담하게 믿고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람들의 성분을 다시 평가하고 정확히 규정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당과 혁명대오는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입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만수대언덕우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로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정중히 꾸리고 사적비들을 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1(1972)년 4월 15일 탄생 60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동지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던 일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은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

초한 가장 공고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1(1972)년 12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작성하시고 주체61(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그것을 채택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도록에 인용한 교시에서 보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

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1(1972)년 1월과 9월에 발표하신 로작을 비롯하여 여러 로작들에서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과 철학적원리, 사회력사원리, 혁명과 건설의 지도원칙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옳바르게 해결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력사적위업입니다.

때문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기나긴 세월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신분은 없습니다.

이제 몇달 지나면 수령님께서 환갑을 맞으시게 됩니다. 이제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우리가 걸머지

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들을 깊이 헤아리시고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옳바르게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데서 기본이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워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주체63(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조직적의사를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수뇌부에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당과 군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김일성**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모신데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출판물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장군님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

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결론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63(1974)년 2월 19일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선포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주의가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고 정식화하신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로작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로청 제6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60(1971)년 6월 사로청 제6차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에서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제 27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3대기술혁명을 다그치며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리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대건설을 벌리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3대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이끄시면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창조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희천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공작기계생산을 늘이는것은 3대기술혁명수행의 중심

고리였으며 기본열쇠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0(1971)년 2월 몸소 희천공작기계공장을 찾으시여 이곳 로동계급들에게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공작기계 1만대를 생산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희천땅에 지펴주신 기술혁신의 불길은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을뿐아니라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기술혁명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시고 어렵고 힘든 로동이 많이 남아있는 채취공업부문에서부터 기계화,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농업의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1(1972)년 가을 당조직들에서 선발한 우수한 일군들과 대학생들로 지도소조를 뭇고 그들을 경공업공장들에 파견하여 3대혁명에 대한 지도능력을 시험해보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주체62(1973)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은 주체62(1973)년 2월 10일 공업부문 3대혁명소조원들을 위한 강습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습에서 하신 교시와 여러 로작들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에 있는 사진은 생산현장에 들어가 과학기술적 지도를 하는 3대혁명소조원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2(1973)년 2월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릴데 대한 구상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주체64(1975)년 11월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기에 의하여 창조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단위에 급속히 확대되였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으로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강령을 투쟁구호로 제기하고있는 운동입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적구호입니다.(도록에 있는 구호를 가리키면서)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들고 떨쳐나선 검덕의 광부들과 청산리사람들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선 검덕의 광부들과 청산리사람들의 뒤를 이어 온 나라 인민들이 이 운동에 떨쳐나섬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이 적극 추진되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청년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한 신문보도자료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

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헤아리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본질적내용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로작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63(1974)년 7월 당조직일군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한에서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신 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구호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63(1974)년 2월에 제시하신 혁명적구호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63(1974)년 2월 11일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할데 대한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다음해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고 그다음부터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는것이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지도위원회를 꾸리고 그것을 잘 운영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게 하시였으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

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하여 5개전선인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김책제철소확장공사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책제철소(당시)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시여 몸소 걸린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3(1974)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릴것을 호소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70일전투를 발기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여 그처럼 긴장해졌던 주체63(1974)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6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사회주의

대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새로 만든 모내는기계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가장 우월한 주체농법을 창조하시여 농업생산에 구현하도록 하시는 한편 새로 만든 모내는기계도 보아주시면서 농사를 보다 헐하게 잘 짓도록 농민들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점령하고 공업총생산액적으로 6개년계획을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제 28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며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66(1977)년 12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6(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습니다.(가운데로작을 가리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국가주권의 본질과 국가주권이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시고 사회주의국가활동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후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

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6(1977)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5차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방침과 제2차 7개년계획의 전망목표를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제2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제2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2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7개년계획의 인민경제 부문별과업들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있는 구호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67(1978)년 12월 25일에 내놓으

신 혁명적구호입니다.

이 구호에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습니다.

이 구호에 관통되여있는 근본정신, 기본요구는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끝까지 높이 추켜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아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9(1980)년 9월 10일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며 여기에 모신 이 사진은 주체68(1979)년 2월 20일 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우의 사진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제2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하여 여러 공장들과 농촌을 찾으시여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우리 인민들을 새 전망계획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제2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문

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첫 개학날 대동문인민학교(오늘의 **김성주**소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발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66(1977)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교육테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

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며 그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우는데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테제에서 교육기관들의 기능과 교육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발표하신 다음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은 주체67(1978)년 10월 1일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교육사업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가 철저히 관철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졌으며 주체59(1970)년에 비하여 주체69(1980)년에 대학은 129개로부터 170개로 늘어나고 481개의 고등전문학교가 새로 나옴으로써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더 잘 키워낼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가장 발전된 교육제도와 교육망을 가진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현대적으로 꾸려진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배우고있는 대학생들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활짝 꽃피우는데 큰 힘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창조성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문학예술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고 영화, 가극, 연극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활짝 꽃핀 주체예술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보건사업과 체육사업을 개선하며 사회주의적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에 있는 사진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검진을 받고있는 청소년학생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보건제도와 보건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시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사업발전에도 큰 힘을 넣어 체육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집단체조를 통하여 체력을 단련해나가는 학생소년들입니다.

제 29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새로운 투쟁과업을 내놓으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는 새로운 혁명로선과 투쟁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69(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여시고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회에서 하신 보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당 제5차대회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귀중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명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보고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과 련방국가가 실시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밝히시고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다시금 천명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대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후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신문보도자료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을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로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

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80년대속도〉 창조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71(1982)년 10월에 전국청년열성자회의를, 11월에는 80년대속도창조에 떨쳐나선 천리마운동선구자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인민들은 도록가운데 있는 《모두다 〈80년대속도〉 창조에로!》 라는 구호를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10대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강철고지와 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0(1981)년 6월 2일 금속공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0(1981)년 6월 2일에는 금속

공업부문 일군협의회를 그리고 주체71(1982)년 8월에는 함흥에서 중요회의를 여시고 강철고지와 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2(1983)년 8월 23일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건설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색금속고지점령을 위하여 검덕과 량강도지구의 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채취설비의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를 적극 다그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3(1984)년 9월 14일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산물고지와 천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도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이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의 근로자들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3(1984)년 9월 24일 3대혁명소조원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소조원대회와 기술혁신자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에 나오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대표들을 축하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현지지도밑에 진행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점령을 위한 총진군속에서 제2차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도표는 제2차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된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한편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1(1982)년 10월 대성산혁명렬사릉을 개건확장할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지시문을 내려보내여 혁명렬사릉 개건확장공사를 전당,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주체74(1985)년 10월 대성산혁명렬사릉이 훌륭히 개건확장되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은 새로 개건확장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며 항일혁명투사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그것으로 간부들과 당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75(1986)년 5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 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주체의 당 건설리론을 전일적으로 집대성하시여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습니다.

제 30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나가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사업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로작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발표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은 주체75(1986)년 12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5(198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원칙과 방도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된 무계급사회이며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주의사회이라는것과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상세히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시정연설은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 개량주의자들에게 내린 철추였고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기치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

시였습니다.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입니다.》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4(1985)년 9월 19일 서해갑문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해갑문건설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갑문건설위치와 우리 식의 가물막이공법을 비롯한 공사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속에 세계 어느 발전된 나라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세계 그 어떤 운하나 갑문에도 대비할수 없는 20리날바다를 가로막는 서해갑문이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단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건설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5(1986)년 6월 24일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서해갑문준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갑문기념비들과 갑문언제와 갑실들을 비롯한 여러 시설물들을 돌아보시고 군인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갑문건설에서 발휘한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

하시였습니다.

도록에 인용한 교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제3차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앞당겨 점령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7(1988)년 2월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를 벌릴것을 제기하시고 몸소 진두에서 지휘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특히 기간공업을 더욱 완비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 그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시는 한편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돌리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수리화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문제를 완전히 풀기 위하여 서부지구 2천리 물길공사를 발기하시고 성과적으로 진척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의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도 적극 추진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1(1992)년 9월 16일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을 찾으시여 농작물의 육종사업과 재배방법을 과학화하여 알곡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게 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새로 만든 신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먹는문제해결에 선차적힘을 넣으시면서 경공업에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한데 큰 힘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평양시건설사판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평양시에는 창광거리, 문수거리, 안상택거리, 광복거리 등 새로운 현대적거리들이 건

설된데 이어 통일거리를 비롯한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함께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에도 문화적이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많이 건설됨으로써 지방도시와 농촌의 면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살림집건설과 함께 평양시에 인민대학습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5월1일경기장 등 수많은 문화체육시설들과 창광원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이 일떠섰으며 지방도시는 물론 산골군에까지 창광원식편의봉사시설들이 수많이 건설되여 인민들이 문화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히 건설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원칙과 투쟁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79(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정연설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

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원칙과 투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져야 하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하며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사회주의의 원칙과 사회주의적방법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이 새로운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더욱 완성되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제 31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을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82(1993)년 2월 18일 사로청 제8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후대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청소년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

시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운명과 우리 혁명의 전도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로청대회를 비롯한 기념행사들을 마련해주시고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청년조직과 청년들이 사업과 활동,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로작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로청 제8차대회에 보내신 서한이며 로작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청년사업부문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주신 가르치심은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해나가는데서 교과서로, 지침으로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70돐기념 만경대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대의 행군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청년일군들을 따뜻이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동맹과 소년단이 나아갈 옳바른 방침과 투쟁구호를 내놓으시고 청년동맹, 소년단명절때마다 몸소 나오시여 청년동맹원들과 소년단원들이 학습과 생활,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참된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공부를 잘하는것과 함께 어려서부터 자기 조직을 사랑하며 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는데 버릇되게 교양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그 어려운 나날 먼저 학교부터 세워주시고 간고한 전쟁시기에는 학습을 계속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지어주시였으며 전후에는 초등의무교육, 중등의무교육, 9년제기술의무교육,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여 청소년들이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희망을 꽃피울수 있게 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청소년사업을 중시하시면서 수많은 학교들을 찾으시여 청소년들의 학습정형을 알아보시고 학습은 학생들의 첫째가는 혁명임무라고 하시면서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많이 배우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자기의 리익보다 집단과 혁명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동무들을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할줄 아는 역군으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소년들의 튼튼한 몸은 나라의 보배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그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모두가 아침체조와 달리기, 키크기운동과 등산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체육활동을 벌려 몸을 단련하며 한가지이상의 높은 체육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4(1985)년 2월 평양제1중학교를 찾으시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밝혀주시면서 평양제1중학교와 같은 학교들을 더 많이 내오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여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적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으며 학생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돌려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구호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제정하여주신 구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왕이라고 하시면서 제일 좋은 곳마다에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을 높이 세워주시고도 한해에 몇차례씩 궁전에 나오시여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여러 연구실들과 활동실들을 잘 꾸리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과외교양의 거점이며 지덕체교양의 본보기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경치좋은 곳에 훌륭히 꾸려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송도원과 룡악산, 묘향산 등 산좋고 물맑은 경치좋은 곳마다에 수많은 소년단야영소를 세워주시고 야영생들의 사업과 생활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학생옷견본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청소년학생들에게 좋은 옷을 해입히시기 위하여 편직공장을 찾으실 때에는 색갈곱고 질긴 뜨개천을 더 많이 짜서 아이들에게 해입히자고 하시였고 비날론의 첫 제품을 보아주시면서도 먼저 아이들의 교복부터 만들자고 당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새옷과 신발, 책가방과 학용품을 다 마련해주시고도 먼 산골학교를 찾으시여 교복의 색갈과 무늬까지 일일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설맞이공연에 참가한 학생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의 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해마다 평양시학생소년들이 준비한 소박한 설맞이공연을 보아주시고 분에 넘치게도 높은 치하를 주시였으며 그들이 공연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며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사랑의 선물까지 가득히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녘땅과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부르는것을 보실 때에도 남녘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생각하시였고 전람회에 나붙은 남녘어린이들의 한장의 사진을 보시면서도 안색을 흐리시며 어서 빨리 그들에게 밝은 앞날을 안겨줄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자고 교시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국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청소년학생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갖은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고있는 재일조선청소년들을 위하여 일본땅 이르는 곳마다에 훌륭한 조선학교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여나 조국땅을 밟아보지 못한 청소년들을 조국으로 부르시여 조선사람으로 태여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시려고 혁명전적지와 명승지, 공장과 농촌을 참관하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떠받들린 재일조선청소년들은 일본땅에서도 조선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세상에 부럼없이 배우며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제 32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81(199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1(1982)년 4월 조선인민군창건 50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전군주체사상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제시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보위자인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날로 로골화되는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며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군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도록 하려면 모든 군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고 군사사업과 군사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군을 주체사상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해서와 인민군대가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65(1976)년 1월 1일 인민군대앞에 새로운 충실성의 구호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를 제시하시고 충실성교양을 원리화, 통속화하여 이 혁명적구호가 군인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되도록 하시였습니다.(도록우에 있는 구호를 가리키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2(1983)년 4월 25일 군사전투정치훈련에서 모범을 보인 군인들을 높이 치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중심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에 기초하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인민군대가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4(1985)년 9월에 열린 조선인민군 지휘관 및 정치일군대회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인민군대안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

고 끝까지 관철하며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군인들속에서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군인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계급적원쑤들과의 투쟁에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군병사들은 적과의 치렬한 결전장에서도 적후에 홀로 남은 절해고도속에서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굳게 간직하고 굴함없이 싸우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육탄용사, 자폭용사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6(1987)년 2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실전훈련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군종, 병종부대들에서 실전훈련장을 만들어놓고 훈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이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며 가운데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구분대전술훈련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군부대들을 찾으시여 군인들

의 군사훈련정형을 보아주시고 모든 군인들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잘 수행해나가도록 고무해주시였습니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적극 추진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고 조선사람의 체질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위력하고 질좋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항일유격대식으로 부대관리를 잘하고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강하게 세우며 관병일치의 미풍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였습니다.

결과 우리 인민군대는 주체전법과 전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원만히 갖춘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으며 인민군대의 군사적 위력은 필승불패의것으로 다져지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현대적기술장비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열병대오와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전투훈련을 벌리고 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백두산총대로 완성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군직부터 넘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0(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81(1992)년 4월 20일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2(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공화국원수로 높이 모시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데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군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장군님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0(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자신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그에 절대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1(1992)년부터 주체82(1993)년사이에만도 10여차례에 걸쳐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대회를 비롯하여 부문별대회들을 진행하도록 하시고 전군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잘 받들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대안에서 관병일치, 당청일치의 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며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고 실지 전투에서 써먹을수 있는것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기층조직이며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로작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화하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0(1991)년에 조선인민군 중대장대회,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사관장대회를, 주체81(1992)년에는 중대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중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지침으

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대지휘성원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하시였으며 웃단위의 지휘관들이 일상적으로 중대에 내려가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와주게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와 중대가 강위력한 전투단위로, 전군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하는 불패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의 대렬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지휘관리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 방어공사를 적극 다그칠데 대한 과업들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방공업발전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주체82(19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당의 국방공업중시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인민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적극 보호하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전민이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원호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방위력은 철벽으로 다져지고 우리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대적도 타승할수 있는 군사강국으로 되게 되였습니다.

○ 도록왼쪽의 이 사진은 일당백의 위력을 시위하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이며 오른쪽의 이 사진은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의 열병대오입니다.

제 33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0(1971)년 8월 6일 평양시군

중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북과 남의 새로운 폭넓은 협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북남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과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마련되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밝히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이 사진은 주체61(1972)년 5월 3일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천명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조선측 대표들과 하신 담화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이룩하는것입니다.

주체61(1972)년 7월 4일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5대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2(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2(1973)년 6월 23일에 하신 연설에서 조국통일5대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5대방침은 북과 남의 긴장상태를 가시고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고 합작하며 북과 남의 대표들로 대민족회의를 열고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며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국호로 유엔에 들어가는것이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침을 받들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주체69(1980)년 5월 광주인민들의 대중적인민봉기는 남조선의 파쑈통치의 지반을 크게 뒤흔들어놓고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이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남조선정세를 료해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9(1980)년 11월 공화국북반부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와 같은 민족공동의 협의기구를 내올것을 제의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70(1981)년 8월과 주체71(1982)년 2월에 북과 남의 정당, 단체대표들과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되는 민족통일촉진대회소집과 북과 남, 해외의 이름있는 정치인들을 망라하는 100인련합회의 소집을, 주체76(1987)년 11월에는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단합을 위한 5개방안을 제의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여러차례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통일문제를 의논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단되였던 북남적십자회담을 비롯한 여러갈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조국해방 40돐을 계기로 북남사이에 적십자예술단과 고향방문

단의 호상방문이 실현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로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80(1991)년 8월에 발표하신 로작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에서 조국통일5개방침과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북남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여러갈래의 대화와 행사들이 평양과 서울, 해외에서 벌어지게 되였으며 마침내 체육분야에서 유일팀이 구성되여 민족의 단합된 힘과 용기를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79(1990)년 8월 판문점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1차 범민족대회가, 11월에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결성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였습니다.

○ 아래의 사진은 조국통일촉진 백두－한나대행진 출정식과 판문점에서 련방제에 의한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들입니다.

특히 주체80(1991)년 12월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이어 북남사이의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되였으며 주체81(1992)년 평양에서 진행된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을 통하여 그 발효가 온 세상에 공포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북남합의서, 공동선언에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2(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친히 작성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계승발전시킨 전민족적인 통일강령이며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을 잊지 않으시고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낼 구호물자 견본품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3(1984)년 9월 큰물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있는 수십만의 남조선수재민들을 생각하시여 쌀 5만석과 세멘트 10만t, 천 50만m 그리고 많은 량의 의약품들을 구호물자로 보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남조선의 《전대협》 대표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8(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전대협》대표를 만나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구호 《수령님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구호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대에 수령님의 사상과 권위를 가지고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전략사상을 천명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 이 사진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 해외교포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4(1955)년 5월에 총련을

무어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총련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총련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과 애국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총련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공민단체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조국의 사회주의건설과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애국활동에서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제 34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계혁명을 다그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신데 대해서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수령님을 세계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끝없이 흠모하고있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1(1982)년 4월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성의 시대적조류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한다는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 어떤 렬강이나 지배주의세력에도 예속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며 철저히 자주적인 길로 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데서 주체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이며 주되는 투쟁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 제국주의세력이라고 하시면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

혀주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사이의 단결,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는 구호밑에 세계인민들이 굳게 단결할것을 호소하시였습니다. (도록가운데 있는 구호를 가리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구호에는 자주위업의 실현을 위한 세계혁명력량편성에 관한 원칙이 집약적으로 명시되여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1(1982)년 9월과 주체76(1987)년 5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고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주체73(1984)년 5월부터 7월초에 걸쳐 당 및 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쏘련(이전)과 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을 공식친선방문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열렬히 환영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불멸의 기여를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을 친선방문하시는 한편 꾸바, 민주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등 사회주의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을 우리 나라에 초청하여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자주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도록에 인용한 교시를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쁠럭불가담나라 정부와 인민들이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온 세계 자주화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64(1975)년 12월에 발표하신 로작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고 쁠럭

불가담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여러 국제회의들을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도록 하시고 성심성의로 도와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0(1981)년 8월 31일 동서아프리카나라 농업부장협의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을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드는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반제자주, 평화, 친선을 위한 국제회의들과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성과를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고 전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81(1992)년 4월 평양에서는 사회주의재건의 대헌장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채택발표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평양선언에 대하여 소개한 신문보도자료들입니다.

평양선언의 기본사상은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고 사회주의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는것이였습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20세기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없이 흠모하였습니다.

○ 도록의 이 가운데사진은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주체사상탑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습니다.

○ 도록중간 왼쪽의 이 사진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와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장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연구소조들이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 조직되고 연구토론회가 널리 진행되고있습니다.

주체58(1969)년 4월에 조직되기 시작한 주체사상연구조직은 오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모든 대륙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연구토론회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인 규모에서 해마다 크게 진행되고있습니다.

주체67(1978)년 4월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일본 도꾜에 세워졌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6(1987)년 4월 15일 우리나라를 찾아온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단들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조선혁명의 수령으로뿐아니라 세계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우러르며 끝없이 흠모하였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주체시대의 력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는 탁월한 령도자》, 《20세기의 위대한 태양》, 《인류가 오래동안 목마르게 기다리던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류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중국과 몽골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건립되고 세계적으로 《국제**김일성**상》이 제정수여되고있으며 세계 100여개 나라 480여개 거리, 기관, 단체들에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져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사회활동가들, 혁명가들과 학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기 위하여 대륙과 대양을 건너 우리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최대의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면서 수령님께 지성어린 선물을 삼가 올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69개 나라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진보적인민들, 해외동포들과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축원의 마음이 담긴 16만 5 920여점의 선물을 받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세계 5대륙에서 보내온 귀중한 선물들이 진렬되여있는 국제친선전람관입니다.

제 35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서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혁명활동을 벌리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위

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하여 자신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김정일**장군님은 정치에서 로숙하며 군사에서 비범하고 경제와 문화에 박식하며 외교에서 원숙하며 인간적으로 다정한 위대한 령도자,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주체81(1992)년 3월 13일, 주체82(1993)년 1월 20일, 3월 3일에 항일혁명투사들, 혁명가유자녀들과 하신 담화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사상과 령도, 풍모, 업적의 위대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81(1992)년 2월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인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친히 비준해주시였으며 탄생 50돐을

맞으시는 장군님을 칭송하여 불멸의 송시를 몸소 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탄생 80돐을 맞으시며 주체혁명위업, 군건설위업과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받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은 탄생 80돐을 계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끝없는 정력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의 말년에 몸이 몹시 불편하시여 치료를 받으셔야 할 형편이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않

으시고 조국의 휘황한 앞날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색의 낮과 밤을 이어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면서 일군들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도록에 모신 사진에서 보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초 이틀간에 걸쳐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결론은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며 나라의 경제를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봉쇄에도 끄떡하지 않는 주체성이 강한 자립적민족경제로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경제건설강령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의 마지막나날에도 인민들을 찾아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6월 19일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3(1994)년 6월 몸소 온천군 금당협동농장과 대성구역의 한 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

시면서 알곡생산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여 이해 농사에서 대풍을 가져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25일에는 어느 한 공군부대를 찾으시여 조선인민군창건 62돐을 맞는 군인들을 축하하시고 그들의 전투훈련모습도 보아주시였으며 군무생활형편에 대해서도 다심한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의 한평생은 끊임없이 인민들을 찾으시는 현지지도의 한평생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인민을 찾으시는 현지지도의 한평생이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수십차례에 걸치는 간곡한 가르치심과 10여건의 친필교시를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전화를 거시

여 북남최고위급회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론의하시였으며 다음날인 7월 7일에는 회담과 관련한 중대한 문건을 한장한장 번지시며 완성하시고 비준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남최고위급회담문건을 보시고 비준하신 《**김일성** 1994. 7. 7.》이라는 친필은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남기신 친필로 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으로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에 있는 이 사진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남기신 친필과 판문점에 세운 친필비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6월 17일 전 미국대통령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미제는 우리와의 핵대결에서 계속 수세에 빠져들자 1994년 6월에 전 미국대통령 카터를 우리 나라에 보내여 조미회담을 다시 열어 조미사이관계문제, 핵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를 타개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미회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미제의 핵소동을 짓부시기 위해 오랜 시간 카터를 만나주시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심혈에 의해서 미국

은 그해 8월에 제3단계 조미회담에 나오게 되였고 10월 조미회담에서는 우리의 의도에 맞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6월 중순부터 약 보름사이에만도 18차례나 외국대표단과 개별적인사들을 접견해주시며 대외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이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얼마나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으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집필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회고록을 집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록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필하신 회고록과 그 집필요강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은 혁명가들이 생활과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참된 진리를 밝혀주는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이며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라고 당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일을 미리 예견하신것처럼 정력

적인 활동으로 모든 부문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시였습니다.

특히 생의 마지막시기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 후대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곡히 이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청소년학생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라고 커다란 믿음과 기대를 표시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6월 7일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참가자들의 축하를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3(1994)년 6월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축하문에서 우리의 모든 소년단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80고령이시였지만 자신의 한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가유자녀들,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연고자들까지 한사람한사람 다 만나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고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5월 5일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나가는데서 항일혁명투사들이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며 자녀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잘 받들고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참말로 위대한 수령님은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는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신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제 36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비록 세상을 떠나시였으나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혁명사상과 민족과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과 온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전체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당한 가장 큰 슬픔이였고 돌이킬수 없는 최대의 상실이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 8일 급병으로 너무도 애석하게 서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

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다가 집무실에서 돌아가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서거는 순직입니다.》

• 전체 조선인민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추모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의 슬픔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온 나라는 울음바다,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으며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며 몸부림쳤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인민군장병들과 청년학생들,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상제가 되여 낮과 밤을 이어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호상을 섰고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수령님을 추모하였습니다.

애도기간인 7월 8일부터 20일까지만도 연 2억 1천 2백여만명의 각계층 인민들과 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여 조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세만세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하고도 뜨거운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7월 1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

결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습니다.

100여리 연도에 200만명의 수도시민들이 줄줄이 늘어서서 위대한 수령님을 바래워드리며 땅을 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20일에는 **김일성**광장에서 중앙추도대회가 엄숙히 진행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통일애국인사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적들의 파쑈적폭압속에서도 조의행사를 널리 조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지어 감방안에서도 애도단식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가장 비통한 마음을 안고 동포조직들이 꾸린 조의식장을 찾아 비분의 눈물을 흘리였으며 수많은 동포들이 조국으로 달려와 수령님의 령전과 동상을 찾아 화환과 꽃다발을 드리며 조국인민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사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잃은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안고 대원수님의 령전과 동상을 찾아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 외국의 벗들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온 세계가 슬픔과 애석함을 금치 못해하며 수령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습니다.

중국, 꾸바, 캄보쟈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우리 나라 대사관, 대표부, 령사관을 조의방문하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어버이수령님을 추모하여 애도의 날, 애도기간을 정하고 조기를 띄웠으며 세계 166개 나라에서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정당지도자들 그리고 각계인사들과 여러 조직들에서 3 480여건의 조전을 보내오고 160여개 나라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되였습니다.

미국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와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현직, 전직대통령들, 정부수반들, 고위정객들도 어버이수령님의 서거에 조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의장도 애도의 뜻을 표시했고 유엔본부청사에는 조기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실로 전례없는 일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와 관련하여 애도기간 120여개 나라들에서 700여개의 출판보도물이 특집을 발간하였고 200여개의 통신, 방송들이 연 2천 2백여회에 걸쳐 특별방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얼마나 흠모하고 신뢰해왔으며 수령님께서 지니신 국제적권위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우리 인민과 민족, 온 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의 전력사적시대를 향도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민족의 존엄과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고수해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 단계의 사회혁명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시고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위업계승완성을 위한 령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여 시대와 인류앞에 가장 특출한 업적을 이룩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시였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 력사적진군길을 개척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 인간사랑의 대화원을 펼쳐주시였으며 우

리 인민모두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민, 가장 훌륭한 인민으로 키워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만민이 우러러 경모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는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탁월한 사상리론가, 걸출한 령도자, 뛰여난 군사전략가, 위대한 인간의 한생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언제나 우리 학생소년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혁명적구호

를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이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들고나갈 혁명적인 구호, 투쟁의 기치를 마련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숭엄하게 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시였습니다.

금수산기념궁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원한 태양의 집이고 주체의 최고성지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주체년호를 제정하고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헌법을 새로 제정하고 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신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결의모임을 가지는 소년단원들입니다.

참말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훌륭히 실현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게 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혁명업적이 대를 이어 빛을 뿌리게 하시였습니다.

•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이렇듯 끝없는 충실성과 숭고한 도덕의리를 본받아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입니다.

우리 학생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기며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야 합니다.

○ 도록아래에 있는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실것을 맹세다지는 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청년들은 《아버지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자!》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

해나가야 합니다.(도록중간에 있는 구호를 가리키면서)
우리들은 우리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앞날의 혁명인재, 청년전위로 억세게 준비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영원히 **김일성**조선으로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야 합니다.